

親北 역사교과서 사용 막아야 한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고등학교 韓國史 교과서 집필, 檢定과 관련하여 수많은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특히 정상적 인간의 常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다.

1. 어떻게 전교조 소속 교사가 筆陣의 4분의 1(37명중 9명)을 차지할 수 있나?

2.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建國'이란 말이 일제히 빠졌는가?

3. 두 교과서는 대한민국 歷代 정부에 대하여 22번 독재라고 지칭하고, 북한정권에 대하여는 5회만 썼다.

4. 아웅산 테러, 천안함 폭침, 대한항공기 폭파 등 북한정권의 천인공노할 7대 도발 사건을 단 하나도 다루지 않은 교과서가 세 개이다.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다.

5. 北核문제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核실험을 하였다는 사실을 쓰지 않은 교과서가 있다.

6. 남한의 人權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북한의 人權문제, 즉 강제 수용소 주민감시 주민학살 공개처형은 다루지 않는다.

7. 두 교과서는 세계사를 바꾼 서울올림픽을 언급하지 않았다.

8. 6종의 교과서가 위대한 기업인 李秉喆, 鄭周永은 본문에서 한 번도 소개하지 않은 반면에 노동운동가 전태일은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도시빈민, 노동자, 농민들을 우대하고 기업인, 군인, 과학기술자를 박대한 교과서이다.

9. 노태우 정부가 불법적으로 入北, 反국가 활동을 한 문익환과 임수경을 처벌한 것을 '탄압', 공산당이 주도한 10월 폭동을 '10월 봉기' 및 '농민저항운동', 北의 공작에 넘어간 윤이상을 '평화통일운동가', 북한군의 양민학살은 국군의 대량학살에 대한 보복이니 '인민재판'이라고 썼다.

10. 反軍선동영화 '화려한 휴가', 反美선동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보도록 권한다.

盧泰愚 정부 때 전교조를 불법화시킨 이론을 만들었던 高永宙 씨(당시 검사, 현재 변호사)의 전교조 이념 분석 결론을 소개한다.

〈전교조 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의 사회건설을 위하여 초·중·고등학생들까지 혁명戰士로 끌어내교자 하는 것이다.〉

6종의 한국사 교과서중 몇 개 교과서는 上記 전교조의 운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란 느낌을 준다.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과 인간상식과 역사학의 기본을 총체적으로 어긴 이런 교

특별기고



趙甲濟

· 전 월간조선사장
· 조갑제닷컴 대표

全敎祖 운동 목표에 들어맞는 내용 初中高生 혁명전사 만들려는 속셈



국가 검인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이중 2가지가 좌편향 기술이 심하다.

과서를 국가檢定으로 公認,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한 교과부 장관은 탄핵 되어야 한다. 이는 공무원 집단에 의한 국가반역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는 공동체는 망한다.

反국가적 고등학교 韓國史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 교과서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1. 북한 체제를 대한민국이 흡수하는 자유통일은 바람직한가?

:정답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명한 6·15 선언에 위반되기 때문이다"가 될 것이다.

2. 1946년 10월 대구 경북지방에서 발생한 폭동의 성격은 무엇인가? 아래에서 정답을 선택하라.

화하기 위하여
: 정답은 a이다.

4. 한국의 경제개발에 가장 공이 큰 사람들은?

a. 전태일과 노동자와 농민
b. 박정희와 기업인과 과학기술자
: 정답은 a이다.

5. 노태우 정부가 임수경, 문익환을 처벌한 것은?

a. 평화적 통일 운동을 탄압한 것
b. 불법방북하여 북의 對南공작에 협력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
: 정답은 a이다.

6. 6·25 전쟁 중 학살의 책임자는?

a. 남침한 북한군이 군인, 시민, 군경가족을 먼저 죽였다.
b. 국군이 보도연맹원들을 먼저 죽여 북한군이 그 보복으로 우익인사들을 인민재판했다.
: 정답은 b이다.

불온문서 수준의 이런 교과서를 근거로 하여 출제하고 채점하면 反국가적인 성향을 가진 親北좌경 인물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 공무원으로 뽑힐 것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도 반역적 교과서를 달달 외울 것이다. 반역적 교과서는 반역적 학생뿐 아니라 반역적 공무원들을 배출한다. 진짜 정답을 썼다가 誤答(오답) 채점을 받은 응시자가 항의하면 출제자는 "무슨 소리야?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데"라고 당당히 받을 것이다. 학생과 공무원들의 좌경화가 완성되어 나라가 넘어간 뒤엔 지금 敎科部(교과부) 장관이 赤化의 길을 연 혁명 유공자로 표창을 받을 것이다.

나의 결론은 이렇다.

"친북좌익적 史觀(사관)으로 쓰인 한국 교과서는, 온갖 왜곡과 조작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敵을 편들고, 대한민국 건설세력(이승만, 박정희, 국군, 기업인, 과학자, 미국)을 비방하기 위하여 쓰인 反헌법적 불온문서이므로 정부는 즉각 사용을 중단시켜, 학생들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국문]

a. 공산당 세력이 주동한 폭동
b. 美軍政에 반대한 농민들의 정의로운 봉기
: 정답은 b이다.

3. 북한정권은 왜 核무기를 개발하고 있나?

a. 미국의 봉쇄-압박정책에 대응, 자위수단으로서
b.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남한을 赤

自虐史觀 얼룩진 親北 역사 교과서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이명박정부가 검인정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성토가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3월 학생들에게 배포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일부가 반국가 불온서적 수준이라고 분석한 보수 인사들은 책임자 탄핵·장관경질·교육과학기술부 감사를 청구했으며, 학계와 언론계도 왜곡 투성이 고교 한국사 전면 개정을 석달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5월 20일 창립한 한국현대사학회도 교육부가 검인정한 일부 한국사교과서는 정치적 목적과 이념의 색안경으로 역사를 왜곡한 거짓이 많으며 진실을 추구하는 객관적인 역사 해석과 서술을 국사학계에 촉구했다. 교과부도 국사편찬위원회의 감사보고를 통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오류와 서술 개념의 혼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국회 교과위 권영진 의원실은 밝혔다. 교육계 원로들은 교과부가 배포한 한국사 교과서의

오류를 공개해 교육 현장의 혼란부터 막아야 한다며 장관 퇴진도 주장한다. MB정부 교과부가 역사교육 기본 방향을 담은 교육과정·교과서기술 지침·검정 심의안 등을 제시하고 검인정한 고교 한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사를 폄하하는 좌편향 시각의 사관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사 전반을 정리한 교재로도 부적합하다는 혹평을 받았다. 새 고교한국사는 3분의 2를 정치사 위주로 서술한 근·현대사(7장 380페이지)가 큰 비중을 차지해서 고대사와 중세사(근대이전 2장 50페이지) 해석이 엉성하며 민족문화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르칠 내용이 소홀 하다고 국편도 지적했다. 70~80년대 대학가에서 반체제 이론으로 제기됐던 가설들마저 수록되기도 해서 대한민국이 김일성정권체제에 편입된 이후에나 나올 수 있는 교과서라는 비난도 받았다. 한 탈북 인사도 북한에서 교재로 써도 좋을 교과서라며 놀라워했다. 검인정 고교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으로 역사학계엔 한 세대 전 운동권의 반국가 의식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 해묵은 이념논쟁이 재연되고 있으며 공교육까지 친북자학사관에 두손든 사태가 확인됐다고 교육계는 한탄한다. 전면 수정이 제기된 고교 한국사교과서를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정부는 검증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대국민 사과도 해야 할 것 같다. 좌편향 정권이 10년간 박은 대못을 뽑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한 MB 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노무현 정권의 근·현대사 교과서의 253개 오류 중 157건을 수정 대상으로 공식 발표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저해하거나 자긍심을 훼손하는

왜곡된 내용이 역사 교과서에 담겨서는 안 된다”고 단호한 개편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MB정부의 좌편향 교과서 개편 권고는 자구 수정에 그쳤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친북 세력의 반란과 반역까지 민중봉기로 왜곡한 교과서가 3년간 묵인됐었다.

학계의 계속되는 근·현대사교과서 개편 역설에 교과



박 석 흥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 언론법학회 이사

으로 검정심의회를 구성,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펴냈으나 바람직한 역사의식과는 유리된 반역적 교재라는 악평과 함께 교과서 편찬과정 오류도 추궁 받고 있다. 12명의 검정위원들은 검정 대상 자료를 각자 심사하고 일주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 합숙 심사 중 문제가 있는 항목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등 심의절

천 반란, 대구폭동, 6·25 전범 김일성 체제를 옹호하고 동정하는 좌편향 서술도 수정하지 않았다. 보수인사들은 국가 국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겐 반감을, 건국을 반대한 반역 세력에겐 호감을, 전범 김일성과 호전적인 김정일에게 동정심을 갖게하는 새 한국사 교과서로 교육받을 다음 세대의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걱정한다. 좌편향 역사 교육을 받은 세대의 자학사관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한국사교과서는 잡다한 사건 나열과 공인되지 않은 역사해석이 산만하게 서술돼 학생들의 건전한 역사인식 계발과는 거리가 먼 설득력 없고 혼란스럽기만한 부담스런 교재라고 일선교사들도 지적한다. 조선 왕조의 몰락과 제국주의 침략,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 6·25등 큰 주제도 객관적으로 서술하지 않아 집필자들의 역사인식과 정직성을 의심케한다.

상해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는 현장을 목격한 김구의 증언과는 다르게 서술되고 있다. 모스크바와 연결된 이동휘 임정 국무총리가 백범을 포섭하는 등 임시정부가 좌우 분파적 충돌이 격렬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받아들인 돈이 투입된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은 잡동사니회였다고 김구는 백범일지에 혹평했다. 김구는 내무총장 직권으로 모스크바 돈 횡령범 사살을 명령한 것으로 국민대표회 기록을 마무리했지만 새 검인정 한국사는 이러한 임정의 움직임은 주목하지 않고 이승만 탄핵과 창조파 개조파만 부각시키고 있다. 또 대한민국 건국전 북한에 소련 위성국가 수립이 진행되고 남한의 공산화 추진이 소련 문서 공개로 확인 됐으나 일부 고교한국사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역한 친북 움직임을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민족주의 운동으로 우호적으로 편향서술하고 있다. 상식을 초월한 교과부 검인정 한국사교과서 왜곡 과동으로 국사학계도 사면초가다. 강만길 커밍스교수가 영향력 있는 학자일뿐 스승이 없는 국사학계가 학문 본연의 자세로 재정립되는 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현대사 집필은 국사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학·국제정치학·경제학·사회학·인문사회학계가 공동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새 지도부에게 “야당 주장을 따라 하기보다는 한나라당 나름의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한나라당이 정체성을 갖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국민 지지도가 회복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MB가 취임 초에 밝힌 좌편향 역사 왜곡 극복이 임기 마지막 작업으로 잘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국]

대한민국 건국 등 운동권 시각으로 폄하 MB정권 정체성 의심... 책임자 문책 마땅

부는 2011년부터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에 근·현대사를 포함하여 수정하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넘겨 6종을 펴냈으나 전정권 교과서의 좌편향성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과 함께 교과부의 무능과 무성의를 질타하는 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새 역사교과서를 검토한 교육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이 MB정부 들어서서 혹 바뀐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개탄한다. 이주호교과부장관은 교과서 개편을 결정하며 무려 253개 항목의 문제가 있는 교과서를 통용시킨 교과부 책임자를 중징계하지 않았고 오류 수정을 역사연구 전문기관도 아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맡기는 안이한 자세로 MB정부의 정체성논란까지 불거지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교과부의 교과서 편찬 체제와 교과서 개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교과부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과부 지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성무 한국문화역사연구원장 등 7명의 국사 교수와 5명의 교사 등

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은 고발했다. 들러리 선 것처럼 보이는 검정위원들의 심의도 문제가 되지만 평가원이 위촉한 검정위원들이 한국사 교과서를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할 만한 전문성 있는 중진 학자들이었던가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 출신 교사가 다수 참여한 집필진도 문제가 있었다. 근·현대사 전공자가 다수를 차지해 전교조가 주장해온 친북 자학사관이 걸리지 않았으며 역사해석이 종합적인 조망이 못되고 단편적 사건 나열로 일관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소련 중국의 문서 공개로 많은 오류가 밝혀진 브루스 커밍스의 수정주의 사관을 신봉하고 있는 386세대 필진들은 평양의 소련군사령관이 김일성 여운형 사부님 등에게 남한 공산당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지시하며 파업자금까지 지원했던 10월 폭동도 민중 봉기로 기술하고 있다. 소련의 비밀문서 공개로 확인된 사실까지 외면하고 편향 서술한 것이다. 10월 폭동뿐만 아니라 제주 4·3폭동, 여수 순

본회 회우 전립선 검사비 특별할인 5만원...건강포럼 참석자 우대키로

대한언론인회는 매월공동으로 '토요건강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이운수 박사와 건강강연회에 참석하는 회우들에게 전립선 검사시 일반종합병원 검사비 50만원의 10분1인 특별가(5만원)로 진료하기로 합의했다. 진료희망자는 이보길 건강포럼담당자에게 전화로 진료를 신청할 때 자신이 원하는 날짜를 밝히고 당일 이운수비뇨기과를 찾으면

되는데 검사는 종합병원 검사항목인 - 배뇨장애증상지수 체크, 체혈을 통한 혈중 전립선암 특이 항원(PSA)검사, 초음파 조영검사를 통한 전립선 크기 측정, 그리고 문진, 처방이다. 대한언론인회는 많은 회우들이 건강포럼에도 참석하고 진료특혜도 누리길 바라고있다. [국]

문의 = 이보길 편집위원
(010-4461-5657)

釜山 저축은행 사건은 大型人災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금융 위기는 피할 수 있었던 재난이었다. 게다가 20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태 복구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든 이유다.”

MIT 정치학 박사 출신의 찰스 퍼거슨 감독이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잡'을 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감독기관이 되레 가담

'인사이드 잡'은 2008년 9월 세계경제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사건을 조명했다. 감독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AIG라는 거대 보험사의 몰락이 규제를 벗어난 금융업계가 만들어낸 명백한 범죄였다고 고발한다.

2011년 제83회 아카데미영화제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받은 이 영화는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월가와 관료 등이 공모한 '금융 사기극'이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거론하기 위해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모를 다룬 영화 얘기를 꺼낸 까닭은 다름 아니다. 이 두 대형 금융 사건이 금융기관을 움직이는 대주주와 임직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정부의 금융감독기관이 방치 내지는 방조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직접 비교, 거론하기는 어렵다. 같은 금융문제라 하더라도 그 발생 배경과 원인, 사건 파장 등에서 서로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금융사건이 공통적으로 대형 인재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이기 전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에 있으며 인재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쩌면 제도를 아무리 바꾸고 개선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금융비리 사건이나 금융위기는 언제, 어디서나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손해보는 계층은 항상 서민

국내의 경우를 되돌아 보더라도 과거 금융 스캔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1980년대의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이른바 '이·장 사건'을 비롯, 1990년대 말의 부산파이낸스 유사 금융사기 사건 등 크고 작은 금융사건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997년의 최대 국난이었다는 외환위기도 따지고 보면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 관리들의

합작품으로 인재였다. 그것은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 사건이 아니었다.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던 일이다. 금융사건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는 항상 손해보고 비참한 낙으로 떨어지는 계층은 불쌍한 민초들 개미군단이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최희조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 중부대 초빙교수

금융非理 종합판... 낙하산 감사가 방조 특정 고교 人脈이 요직 차지 좌지우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한 마디로 금융비리의 종합판이다. 고객들의 대부분이 서민들이다. 이들은 노후자금으로 쓸 퇴직금이거나 수십년 동안 모은 돈을 다른 금융기관보다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아보겠다고 저축은행에 맡겼다. 그러한 돈을 은행 관리자들이 마음대로 주무른 결과 재앙을 불러 온 것이다. 고객 돈을 성실히 굴리고 불려서 고객들에게 돌려줄 생각을 저버린채 사리사욕을 위해 물쓰듯 써버려 은행 문을 닫게 만들고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거액의 부정대출을 비롯, 횡령 배임, 임원의 부정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직원들의 험박 갈취 행위, 회계조작, 은행비리를 덮기 위한 관계 요로에 대한 금품살포 로비, 언론 무마용 돈 뿌리기 등등.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비리행위가 캐면 캐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났다. 거기에서 이러한 금융비리를 감독하고 철위를 내려야 할 감독관청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리행위는 굶을 대로 굶아 터지고 말았다.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신고를 받고도 감독을 하는 척 마는 척,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갔다. 방임을 넘어 방조자가 되고 공범의 반열에 까지 오르게 돼 금융감독원은 '금융강도원'이란 험한 소리를 듣기에 이르렀다. 은행비리에 대한 집안단속을 해야 할 감사는 집안 폐도독들이 마음놓고 도둑질 하도록 도왔다.

나라 위기 빠뜨린 꼴

금융감독기관에 오래 근무하다가 퇴직후 낙하산 타고 내려가 감독관청의

눈과 입을 막고 독집안의 문지기 노릇을 한 셈이다. 더욱 개탄할 일은 소위 VIP고객들에게 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아 셔터 문을 내린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어 예금을 전액 빼내가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은행 임직원 자신들을 포함, 그들의 연고자들에게도 그렇게 했음은 물론이다. 은행이 신용을 생

용 장인환 사장 역시 광주일고 출신이라고 한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KBS는 "부산저축은행이 광주일고 출신 김양 부회장 등 임직원 170여 명의 지인과 친인척 앞으로 대출한 돈은 모두 7,340억 원에 이른다. 임직원들의 부모형제는 물론 처남매, 매제, 처제 등 사돈의 팔촌에까지 빌려준 6,400억원의 대출금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박연호 회장은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게 되자, 검찰 고발에 대비해 130억 원대 차명주식을 처분하면서 고교동문에게 사례비로 44억 5000만원을 줬다"고 보도했다.(이하 생략)

언론도 제대로 보도 안해

이같은 칼럼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 상에서 누리꾼들이 양분된 의견으로 열띤 논란을 벌였다. 하나는 지역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이다.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인맥 때문에 사건이 발생

한 것처럼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학교 출신들이 연루됐다고 해서 그 지역 전체나 학교 동문 전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는 말할것도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갈등 조장 주장을 앞세워 중요한 사실을 거론하지 말라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비리논페 행위다. 철저히 파헤쳐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일부 언론의 나몰라라식 보도행태에 대해서도 맹비난이 가해졌다. 총리실의 민간사찰과 관련해 영포회(영일 포항 출신들의 친목 모임)인가 뭔가 할 때에는 수십 년 묵은 자료까지 들춰내 한 사람 한 사람 실명거론하고 미주알 고주알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저축은행사건 연루자들의 특정 학교 인맥에 대해선 다수 언론이 왜 눈감고 정부만 몰아세우느냐 하는 지적이다. 문제의 본질은 이러한 누리꾼들의 논란에 있지 않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이번 저축은행 사건이 인재이고 인재라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금융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연루자들의 비리 재산 환수와 형사처벌 등 일벌백계 해야 한다. 제도도 물론 바꾸고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를 바꾼다고 절대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사람이 함께 바뀌어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한 두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다수의 눈과 귀와 입이 열려 있으면 된다. [본문]

명으로 한다는 기본 상식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었다. 돈과 힘(공권력)있는 사람들이 나라 기강을 무너뜨려 국민의 원성을 사게 만들었으니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꼴이다.

비리주역들 연결고리

이번 금융비리 사건이 인재 종합판이란 사실과 관련,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또 있다. 다음은 인터넷 매체인 뉴데일리에 5월18일 실린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의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 부산서민 착취 사건'이란 제목의 칼럼 내용중 일부이다.

《(전략)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번 부산저축은행의 금융비리는 광주(일고) 출신들의 조직적인 '불법 대출'과 무지막지하게 자행된 '무모한 투자'와 이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로비'로 인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사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번 부산저축은행 금융비리사건은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의 부산서민 착취사건'이라고도 규정될 수 있다. 분명 이번 금융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광주일고 출신들이 있다. 이들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부터 비리를 키워왔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뿌리 내린 '부역자'들이 비호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이 광주일고 출신 마피아 짓이라는 증거는 적지 않다. "부산저축은행 그룹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장은 모두 광주일고 선배사이다. 금융감독원(옛 증권감독원) 출신인 문평기 부산2저축은행 감사는 박회장의 고교 2년 선배다. 부산저축은행의 자금 조달에 참여한 KTB 자신은

‘기백있는 經濟人’이 나와야 한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나는 그동안 거듭거듭 정치와 언론 그리고 종교의 문제를 거론해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항상 ‘우리나라 경제계는 이대로 좋은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왔다. 지금, 우리의 경제 규모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는 엄청나게 커져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계는 그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는 그전보다 훨씬 왜소해 보인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세계에도 그 규모에 상응한 거물급 지도자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 검찰은 언제든지 비자금 조성 등의 명목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 조사할 태세여서 총수들은 바짝 엎드려 있는 형국이다. 잘못 고개를 쳐들었다가는 언제 날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전전긍긍이다. 그런저런 이유로, 재계 총수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회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어 장기간에 걸쳐 개점휴업 상태를 겪었다.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세평에 상응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경제활동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몫이지, 대통령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일을 맡을 기업 측에서도 무슨 말이 있어야 할 것인데도 그것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과 기업은 상명하복 관계인가.

최근, 전직 총리인 사람이 나서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초과 이익 공유제’론은 아무리 호의적으로 보려 해도, 정부가 이를 시행할 생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다음 총선을 의식하여 호남에서 당선자를 내 보기 위한 일종의 좌파 포섭책의 일환인 것 같다. 그렇다면 정부와 재계간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충분한 사전 의사소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이런 혼란은 정부와 재계 어느 쪽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고, 마땅한 대정부 창구를 구축하지 못한 재계에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나는 시급히 재계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로 뭉뚱 그린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도둑을 막는 것은 정부의 임무이다. 그러나 경

찰의 힘이 도둑을 막기에 미흡하다면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설 방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재계 스스로가 자기 집 울타리를 둘러쳐야 한다. 단지 자기 집 울타리를 높이 치기만 한다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계책이다. 정계에도, 언론계에도, 종교계에도, 시장경제 옹호론자들을 다수 육성해야 한다. 지금 재계에는 그렇게 할 만한

특별기고



박현태

- 본회 회우
- 전 KBS 사장
- 전 국회의원

大企業은 국가에 진 빚 갚아야 할 때 개별업체 이익 초월 애국심 발휘를

충분한 능력이 있다. 법언(法諺)에는 ‘권리 위에 잡지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다. 지금 우리 재계는 자기 권능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심지어 결심만 하면, 새로운 정권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금 대기업측은 정부의 규제 철폐가 경제발전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우리의 경제발전 역사를 보면, 오늘날의 대기업은 오로지 정부의 강력한 규제의 소산이다. 정부가 먼저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문마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늘날의 대기업들은 막대한 특혜를 누렸다. 선정에서 빠진 기업의 신규참여는 봉쇄되었으며 선정된 기업은 정부의 주된 투융자 대상이 되어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았다. 게다가 자금지원 뿐 아니라 저금리, 저환율, 저세율, 저임금 보장까지 받았으며, 정부는 저임금제를 지원하기 위한 저곡가 정책과 노동운동 방지대책까지 해주었다. 말하자면 정부의 모든 능력을 총 동원한 지원책이었다. 지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바로 규제였다.

있지만, 갚을 때는 푼돈이 되어 있었다.

또 5개년 계획 이전에는 미국에서 무상으로 받은 곡물을 유상으로 팔아 정부가 조성한 이른바 ‘대충자금(對充資金)’의 지원을 받아 사업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대기업들은 규제철폐만을 주장할 입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막대한 세금을 납부했고, 막대한 정치자금을 지불하였으며 자기 회사 임직원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주고, 고 임금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견이다.

지금 대기업 창업주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2세들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다. 아마도 지금의 재벌2세들은 설령, 그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리의 역사를 잘 모를 것이다. 왜, 우리가 서독에 그토록 많은 광부와 간호원을 보냈는지도 잘 모를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서 달러가 없었다. 외환이 없으므로 외국에서 산업 시설을 수입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서독에 광부와 간호원을 파견하게 되었고, 그들이 받을 임금을 담보

로 시설자금 차관을 얻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광부와 간호원 해외파견은, 국내적으로는 고학력 실업자해소라는 효과가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자금 획득이라는 이중의 효과가 있었다.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경제정책이었다. 사실, 광부들은 탄광에서 일 해본 경험이 있는 광부가 아니었고, 간호원은 병원에서 일을 해본 간호원이 아니었다. 다만,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 일 뿐이었다.

우리의 경제건설은 이렇게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부자들은 그 부(富)가 모두 자기의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우쭐댈 일이 아니다. 재계는, 우리의 역사를 직시하고 이제부터는 그 안목을 한층 높여 국가로부터 진 빚을 갚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여할 태세를 갖추어야 할 시기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서도 손색이 없는 경지에까지 도달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정계는 애

국심이 전혀 없는 ‘스물 포테이토’들의 정권쟁탈 경연장이 되어 있고, 언론계는 자신의 언동이 국가에 유익한지 유해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이비(似而非) 언론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고, 종교계는 좌파의 온상이 되어 있다. 경제계는 자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소물 경제인의 난투장이 되어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도 과연,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느냐가 문제인 상황이다. 국가가 무너져도 경제가 유지되고, 시장경제와 기업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나의 문제의식이다.

나는 기백 있는 경제인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기백 있는 경제인’이란, 개별 기업과 업체의 이익을 초월한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인을 말한다. 만일 이런 경제인들이 나온다면, ‘기백 있는 정치인’ ‘기백 있는 언론인’, ‘기백 있는 종교인’이 나올 수 있다. 기백 있는 정치인, 기백 있는 언론인, 기백 있는 종교인이 나온다면, 우리는 한꺼번에 이 누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막 태동하려는 한국적 르네상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것은 이 한 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필자\]](#)



홍성 용봉산서 즐거운 하루 본회 산악회상반기 정기 산행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안종우)는 지난 5월 26일 목요일 충남 홍성군소재 용봉산에서 안종우 회장을 비롯 김재영, 이구열, 이종운, 지용우 원로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2011년 상반기 정기산행 행사를 가졌다.(사진)

이날 오전 8시 프레스센터앞을 출발,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10시경 용봉산에 도착, 약 2시간

에 걸쳐 용봉산을 지나 정상에 올라 하산까지 회원들 모두 무사히 산행을 마쳤다. 귀로엔 덕산온천서 온천욕으로 피로를 풀고 수덕사 경내와 운봉길총의사를 돌아본 후 근처 ‘산장궁’ 식당에서 특산물 산채정식과 막걸리로 오찬을 즐겼다. 한편 안종우 회장, 김재영, 이종운, 지용우원로회우, 정운종이사 등이 찬조금을 내주어 행사를 더욱 즐겁게 했다. [\[필자\]](#)

6·25 참전용사 禮遇 너무 야박하다

대한민국은 6·25를 기억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6·25를 잊은 모양이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고 있다는 말이 옳다. 대한민국에서 6·25는 이미 '잊혀진 전쟁'이 되어버린 것인가.

아직도 살아있는 6·25의 노병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의 존재를 까맣게 망각하고 홀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국민 1인당 GDP는 2만불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데 거지 동냥 주는 식으로 최저생계비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월 12만원의 푼돈을 주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문개고 있다.

5·18 광주사태 피해자들에겐 최소 4천만원에서 수 억원까지 보상금을 주면서 목숨을 던져 나라를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출한 참전용사들을 돕는 일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

참전용사들이 누구인가. 견위수명(見危授命), (나라가)위급함을 보고 목숨을 내던진 애국자들이 아닌가. 이제는 거의가 저 세상으로 갔고, 생존자들도 백발이 되어서 여생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한 노인들이다.

물론 참전용사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다치고 남은 여생을 힘겹게 살고 있는 그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지 않은가. 오늘의 번영한 대한민국은 국가존망지추의 위기에서 목숨 바쳐 싸운 국가유공자들의 공로와 희생위에서 이룩된 것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작 6·25전쟁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참전용사들을 가장 홀대 하는 나라라는 사실이야 말로 이만저만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참전 16개국중 하나인 호주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한국의 참전용사들은 월 12만원을 구걸하듯이 타 쓰고 있는데 비해 호주에서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한국인(이민자)에게도 월 200만원 이상에다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매월 2주마다 1,100달러, 월 2,200달러를 통장에 입금해 준다. 거기에 의료혜택 100% 면제, 전기, 전화료 감면, 자동차 등록세 면제, 가스요금 전액면제, 수도요금과 오물수거세 면제, 사업자는 감세혜택 등 참전용사들



지 용 우

·본회 6·25 참전 동우회 간사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은 그야말로 특별시민 대접을 받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 군인출신으로 캐나다에 10년이상 거주한 한인들과 미망인을 대상으로 월 2천달러까지 지급하고, 캐나다의 전역 군인들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혜자 본인이 사망

하면 부인에게 혜택이 승계된다.

여기에 비하면 한국은 참전용사들을 너무도 홀대하고 백안시하는 비 문명국의 범주에 속한다. 현재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용사는 모두 23만 3천여명이다. 이중 일반 참전유공자는 18만 4천여명, 국가유공자는 4만9천명이다. 이들을 상당수가 끼니를 걱정할 정도의 빈곤층이다. 참전용사들의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생활고로 버거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한 통계에 따르

면 국민 1인당 한달 최저생계비는 53만 2천원이다. 그런데 6·25(일반)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은 월 12만원이 전부다. 심하게 표현해서 '거지 동냥'이나 다름없다. 이게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배려인가. 국가적인 수치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월남처럼 사라지지 않고 세계지도에 남아있는 것이 대체 누구의 덕인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왕년의 참전용사들을 이렇게 푸대접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애국 애족사상을 고취할 수 있겠는가. 군대를 기피한다고 개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연평도 포격 따위 국지적 충돌은 전쟁시능에 지나지 않는다. 제2의 6·25가 절대로 없으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국가초비상사태의 경우 젊은이들이 기꺼이 나라를 위해 싸우게 할 풍토를 조성하자면 지난날의 역전의 용사들을 나라에서 우대하는 것이 그 첩경이다.

그 하나가 참전용사들의 명예수당을 대폭(적정수준까지)올려주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㉔

전쟁기념관에 6·25 종군자료 전시

임학수 회우

민족 상잔의 6·25 전쟁 중 종군기자로 참전한 대한언론인회 회우들의 각종 보도 기록물 등 자료들이 전쟁기념관 자료실에 전시되었다. 전시실에는 이들 종군기자가 전란 중 일간지에 보도한 신문 스크랩을 비롯 종군기자증, 각종 훈장 등 귀중한 자료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임학수 종군기자(본회 원로회우) 보도는 급박했던 당시의 전황과 아울러 전쟁당시 아군의 전력증강 문제가 초미의 과제로 부상했음을 생동감 있게 일깨워주고 있다.

1951년도 1월 19일자 자유민보에 실린 이승만 대통령 '한국군 60만 중무장, 릿장군 참모본부에 요청' 제하의 기사가 주목을 끈다.

다음은 6·25 전쟁당시 임학수 종군기자가 특종으로 보도한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李承晩 대통령 '한국군 60만 重武裝' 특종보도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침략으로부터 세계를 방위하기 위해 한국은 최소한 50만 이상이 무장되어야 한다

고 미국요로에 누차 요청하고 미중합참모본부장에게 한국군 60만 중무장을 요청했다고 이종찬 총참모장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군 20개 사단 증설과 60만 이상의 한국



임학수 회우

군에게 서구라과 방위군에 비해 좀더 우수한 장비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장비 보강은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과 함께 총력전으로 북한 공산군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

는 국군의 사기 진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임학수 회우는 또 1951년 5월 3일자 임학수 기자 기명을 통해 '옥쇄(玉碎)정신으로 현진지 사수, 적의 공세는 좌절 실패 일로, 정일권 총사령관 전선 지휘소서 결의 표명'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육해공군총사령관 정일권 중장은 5월 3일 이곳 동부전선 00지구에서 "비겁하기 짝이 없는 적은 5월 22일부터 춘계 공세라고 일컬어지는 최후 발악적인 인해전술로 아군의 방위선을 침공하여 왔다...

왕성한 시기의 국군장병들은 차라리 옥쇄할지언정 현재의 진지를 사수한다는 결의 아래 밀려오는 적을 모조리 사살하고 있다. 이 결의는 후방에도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쟁기념관의 종군기자 자료실은 참관객들에게 6·25에 대한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 참전 회우들의 목숨건 활동들이 이제 살아있는 역사로서 민족의 비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㉔

'한국군 60만 중무장' 특종보도 포함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임학수 회우의 6·25 종군자료.

‘아이돌K-POP’ 국가브랜드化 할 때

드라마에 이어 한류의 대표적인 문화 상품으로 떠오른 K-POP(한국가요)이 일본과 중국을 휩쓸고 난 후 동남아를 찍고, 유럽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했다.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뛰어난 가창력과 예쁜 인형 같은 얼굴과 날씬한 몸매, 완벽에 가까운 안무와 섹시한 동작, 지구인의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사운드로 재벌기업을 물리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로 뜨고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이돌 그룹의 K-POP 열풍이 세계에 메아리치고 있다.

지난 달 초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젊은 백인 여자 300여명이 춤을 추며 즐거운 시위를 하고 있었다. 행인들의 시선을 끈 그 시위는 정치 데모가 아니라 6월 10일 파리에서 공연할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등 한국 K-POP 스타들의 공연티켓을 구하지 못했다는 시위였다. 인터넷으로 판매된 공연티켓 6000장이 발매 15분 만에 팔렸기 때문이다. 공연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프랑스 K-POP 열렬 팬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한다.

유럽에서의 한국가요에 대한 열정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영국 런던 트라팔가 광장 옆 한국문화원 앞에는 ‘제1회 런던 K-POP의 밤’ 행사장에 들어가기 위해 200m 이상 긴 사람 줄이 펼쳐졌다. 런던에서 600Km 떨어진 북쪽의 스코틀랜드에서도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와서 한국문화원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미국에는 원더걸스가 진출해 있고, 칠레 페루 등 남미 국가, 중동, 아프리카 젊은이들이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를 통해 K-POP을 따라 부르고 춤을 춘다. 한국가요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한국가요는 삼성, LG, SK보다 더 유명한 한국브랜드로 잡아가고 있다.

세계 어느 대륙을 가도 한국 아이돌 스타의 노래와 춤을 만날 수 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 전자제품의 세계 진출에 이어 대륙과 인종의 벽을 넘어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엔 K-POP을 만날 수 있다. 지금은 K-POP을 알리는 수준에 머

時 論



김 화

- 본회 전문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현 데일리 리뷰 논설실장

인터넷매체와 유튜브를 통해 세계 64개국의 젊은이들이 K-POP을 따라 부르고 아이돌 스타의 춤을 추며, 같은 의상을 입고 화장까지 따라 한다. 심지어는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소녀시대가 광고모델로 나온 비타민드링크 빈병 한 개를 3,000원에 산다고 한다. K-POP의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있지만 흥을 돋우지는 못했다. 유럽 노래의 이런 답답함을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일격에 무너뜨린 것이다.

마돈나 같은 섹시윙동의 가수가 있지만 한국의 아이돌 그룹처럼 한 사람이 아닌 그룹이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와 화려한 춤으로 세계 젊은이들의 감성을 매혹시킨 아이돌 그룹은 없었다. 아이돌 그룹의 6월 파리 공연이 성공해서 그 여세를 몰아 K-POP이 유럽의 주류음악에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세계 POP의 중심지가 서울이 될지도 모른다. 한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 이성애가 일본에서 ‘가슴 아프게’를 일본말로 불러 히트한 게 한류의 시초다. 한류의 출발은 가요였다. 한류가 한 동안 뜸하다가 1990년대부터 드라마가 일

본과 중국 동남아를 품미하면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드라마가 퇴조하고 곧바로 한국가요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한국가요의 중심엔 아이돌 스타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가요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 젊은이들에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제 시작이다. 점령이나 진출보다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다. 그러나 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다. 일부에서는 너무 호들갑 떠한다고 우려하지만 한국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연장하라고 시위까지 벌어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류를 잘 관리하고 국가적으로 육성하면 전자제품이상의 문화 수출상품이 될 것이다. 세계 극장가를 90% 이상 석권한 미국영화의 위력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은가. 영화나 가요는 문화상품으로서 국가 품격을 높인다.

21세기는 문명보다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다. 한류를 잘 가꾸는 것은 그래서 국가적 책무다. K-POP의 유럽 진출을 결코 가볍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중요한 문화상품이다. [4]

동방신기-소녀시대 등 유럽서 열광 韓流 잘 가꾸는 것은 국가적인 책무

물고 있지만 머지않아 한국기업의 전자 상품 판매수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한류의 확산이란 문화전파 외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제 한류의 주류로 떠오른 K-POP이 세계를 품미하기 위해선 유럽의 음악시장을 석권해야 한다. 유럽은 세계에서 대중음악 시장규모가 제일 크다. 중국 1조원, 일본 4조원, 미국 6조원에 비해 유럽은 7조원 규모다. 아이돌 그룹의 한국가요가 유럽시장을 만약 점령하게 된다면 그 열풍은 자연히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남미로 흘러간다. 그래서 유럽문화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에서의 한국 아이돌 그룹의 K-POP 돌풍은 출발이지만 청신호임이 분명하다. K-POP이 세계의 젊은이들을 들끓게 하자 KBS 2 ‘뮤직뱅크’는 세계 15개국에 방송되고 있으며

한국 아이돌 스타의 노래에 세계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열광할까. 인형 같은 얼굴에 날씬한 각선미, 섹시하기까지 한 몸의 율동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곡의 세계성에 있다. 한국 작곡가가 아닌 유럽 작곡가들의 창작곡 이라는데 있다고 본다.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는 유럽 디자인뮤직팀이 곡을 만들었고, 동방신기의 ‘주문 미로틱’은 덴마크 작곡팀이, F(X)의 ‘CHU 러브’는 스웨덴 작곡팀이 만들었다.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는 가사와 박자가 조화를 이루고, 여기에 에너지 넘치는 율동까지 더해지니 젊은이들의 감성과 딱 맞는다. 지금까지의 유럽 노래는 청각 위주였지 시각은 도외시 했다. 그러나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은 시각과 청각을 뛰어넘어 오감을 자극한다. 대부분의 유럽노래는 가사의 의미 중심이어서 깊

한국전쟁때 병참기지로 폐단을 번 일본은 그것을 밑천으로 급성장, 매년 9.2%의 고도 경제성장을 20년간이나 지속하다가 1974년의 오일쇼크를 맞고서야 비로소 주춤해졌다. 국운의 뻗음을 구가하면서 1973년을 복지원년(元年)으로 정한 일본은 의료급부(給付)의 개선, 연금수준인상, 생활보호기준인상, 노인 의료비증대 등 사회보장분야의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서민생활의 모습은 다양하게 달라졌다. 두드러지게 변한 것이 병원사정이었다.

종합병원에 가면 세시간 기다렸다가 3분간의 진찰끝에 커다란 약봉지를 안고 나와야 했다. 규모가 작은 시중의 일반의원도 약더미를 떠안기기는 매일반이었다. 환자는 건강보험을 납용했고 의사는 진료보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것으로 이른바 ‘구스리즈케(薬漬) 의료=약에 담긴 의료’가 만연한 것이다.

오사카(大阪)의 메인스트리트인 미도스지(御堂筋)의 중간지점에 이도추(伊藤忠)상사 오사카 본사가 있다. 그 건물

안에 내가 다니던 K의원이 있었다. 일본 생활에서 처음 드나든 의원이다. 그때 만해도 40대 중반으로 크게 걱정할만한 병은 없었으나 자주 감기에 걸리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서울에서 조·석간 신문의 법조출입기자로 뛰는 동안 쇠약해진 몸을 오사카에서 보신해보자는 계책이 떠올랐다. 그러라고 등을 떠민것이 처음 만져본 건강보험증이었다.

일본은 1961년부터 전국민이 보험에

“공짜보다 비싼건 없다” 日本 무상의료의 교훈



김 귀제

- 본회 원로 회우
-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제도를 채택, 1년이상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들어야 했다. 여러가지 보험이 있었는데 신문사 월급쟁이가 가입하는것이 ‘정부관장건강보험’으로 나는 1975년 3월에 피보험자가 됐다. 그 당시 이보험에 가입한 본인은 의료비부담이 0%였다. 무상의료임을 알기가 무섭게 뭉가에 흘린듯 건강보험증을 함부로 빨리 써보고 싶었다. K의원의 H의사 앞에 앉은 나는 “감기에 안걸리는 체질과 걸려도 잘 이

겨내는 면역력을 키워달라”고 부탁했다. 병치료라기 보다는 체질개선을 의뢰한 것이다. 간곡한 그는 이리저리 헤아린후 원내처방전을 써 주면서 매주 한번씩 들르라고 했다. 약은 예상했던대로 알약 캡슐 소화제 등 다섯가지나 되는데 하루 세번씩 먹으라는 것이다. 몸이 약에 절고도 남을 분량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약은 표적으로하는 세포에는 유익한 작용을 하지만 표적 이외의 세포에는 해로운 작용을 하는 약이었다. 그리고 표적세포라해도 약의 분량이 지나치면 부작용을 일으키고 또 상생이 맞지 않으면 피부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K의원에서 타오는 약무더기를 안고 다니기 3개월이 지났다. 약의 효용을 확인 할 때가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체질개선의 효과는 찾아볼수가 없었고, 체온이 오를때면 팔뚝상부일대의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증상을 감지했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세시봉 열풍 大衆文化 변화바람

‘하얀 손수건’ ‘사랑이야’ ‘고래사냥’ ‘그건 너’ ‘왜불러’지금은 60, 70세대가 된 노령층이 40여년 전 젊은 날에 애창하던 노래들이다. 노래를 부른 가수들도 더불어 회갑을 넘어 섰다. 최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그 노래를 다시 부른 올드 싱어들의 공연에 객석을 채운 1,500여 관객들이 환호성으로 열광을 나타낸 반응이 화제에 올랐다. 지방 순회 공연으로 이어진 그들의 분주한 활동은 이미 금년 하반기 미국지역 등 해외 공연 일정까지 짜두고 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일시적 복고 현상 정도로 쉽게 식을 줄 알았던 이른바 ‘세시봉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불쑥이 음반시장에서 악기시장까지 튀었다. 그들의 히트곡들을 담아 발표한 앨범은 아이돌 일색이었던 차트에서 상위권에 올랐고 악기점에서는 통기타까지 잘 팔린다. 대학에 통기타 동아리가 생기고 포크나 올드 팝을 배우는 학원까지 등장했다.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며 변화무쌍하게 앞으로만 질주하던 대중문화가 갑자기 역류, 추억으로 회귀한 이례적인 사건이다. 1960년대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은 서울 무교동의 음악감상실로 당시 유행하던 팝송을 들려주고 간혹 라이브 공연을 하던 ‘세시봉(C'est si bon)’을 기억한다. ‘세시봉 친구들’인 조영남,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 등은 그곳을 찾아가수의 꿈을 나누고 키웠고 이어서 통기타 가수의 전성기를 이끌어 낸 주역들이다. 세시봉의 MC시절을 보낸 이상벽, ‘그건 너’의 가수 이장희도 빠질 수 없는 통기타 친구들이다.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무겁게 가라앉은 환경 속에서 젊음과 욕망이 분출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절, 청바지에 통기타 하나 들고 감미로운 포크송을 들려주던 얼굴들이다. 그들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반가운 게 당연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까지 세시봉 붐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세시봉 신드롬의 원인을 알려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나는 가수다’(약칭 나가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수년간 일요일 저녁 시청률 경쟁에서 뒷전으로 밀려있던 MBC 예능프로를 기적적으로 소생시킨 이 프로그램의 형식은 단순하다. 가장력 있는 가수들이 출연해 마음껏 노래 부르는 게 전부다. 가수들 간 경쟁 체제를 갖췄다 뿐이지, 이전에도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있었다. 박정현은 ‘유

희열의 스케치북’에서도 열창했었고, 임재범은 ‘수요예술투대’에서도 이미 폭발력을 보여줬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나가수’에 열광하는 건 경쟁을 내세운 게임의 흥미와 순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드라마적 오락성 이야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가수’는 무대 사이사이에 출연자들의 비화와 세세한



김두호

- 분회 회우
- 전 스포츠서울연예부장, 굿데이 편집국장
- 제15대 한국 영화평론가협회장



TV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한 세시봉 가수 주역들.

가창력보다 몸매·춤의존 경향에 경종 사회 변화 시키는 예능프로의 힘 실감

감정을 잡아내고 있다. 똑같은 무대라도 ‘나가수’를 볼 때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유다. 가수활동을 해온 프로들의 세계에 순위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쇼이지만 매순간 감정을 움직이는 연출의 리얼리티가 시선을 끌어 잡게 한다.

‘세시봉 친구들’도 분명히 바람의 출발점이 된 창구는 방송이지만 ‘세시봉 친구들’이 신문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음반시장과 공연무대에서 전성기를 새롭게 맞이하게 한 힘은 나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니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랩을 비롯한 새로운 음악 장르에 귀를 막고 살았던 장 노년층에게는 노래다운 노래를 다시 만난듯 반가움을 느끼게 했다면 젊은 층에서는 여유와 빈틈이 없이 기계적으로 조립된 느낌의 음악 속에 살다가

시원한 목청과 감미로운 노랫말로 통기타를 치며 불러주는 추억의 노래를 신선하게 받아들인 면이 있다. 포크송이나 올드 팝 중에는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흥얼거리는 어른들의 노래 속에서 귀에 익은 노래가 많다. ‘세시봉 친구들’은 음악 프로보다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는 오락프로의 출연을 통해 한층 높은 호응

청, 금보라가 ‘전설의 여배우’로 초대됐다. 방송만이 아니었다. 포털 네이버는 옛날 신문을 ‘다시보기’ 서비스하면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활발하게 활용했다. 한 마디로 복고 콘텐츠가 상품성이 있다는 건데, 핵심은 세대 간 소통에 있다. 복고 아이템이 TV에 나오면 아빠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이야기를 나눈다. 어릴 적 동화책을 읽어주던 게 고작인 단절된 가정에 이야깃거리가 생긴다. ‘엄마 아빠는 몰라’ 하던 아이가 진심으로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다채널 다매체 소재 고갈의 시대에 배경과 의도마저 건전한 복고 콘텐츠가 열풍을 일으킨 건 당연한 현상이다.

세시봉 부활에는 다시 말해 현 대중문화를 이끌어 가는 일부 뮤지션에 대한 불신감과 거부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요무대에는 가장력보다는 춤과 몸매, 화려한 의상, 조명과 요란한 무대장치에 의존하고 연출 스타프에 의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패션형이나 로봇형 립싱크형 가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공개적인 선발시스템의 검증과정 없이 아이돌 스타의 반열에 오른 엔터테이너 중에는 가수와 탤런트, 오락프로의 게스트 중 어느 직업인인지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물질만능의 시대적 환경은 촉망받던 가수와 예능인들이 부조리한 현실과 생활고를 비판하며 목숨을 버리는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세시봉의 친구들’로 활동하는 소수의 가수들은 통기타시대를 이끈 인물들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그들 외에도 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그 시대를 이끌었던 주역 뮤지션은 신중현, 김민기, 김창완, 양희은, 서유석 등 적지 않은 수에 이른다. 느닷없이 대중음악의 앞머리에 등장한 세시봉 음악인이 어떻게 생각하면 흘러간 물로도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대중음악계와 올드 싱어들에게 안겨준 것처럼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한편은 복고풍 바람의 진원지인 방송의 위력과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방송의 책임감에 대한 두려운 시각을 버릴 수가 없다. 여전히 대중문화를 움직이는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방송이 예능프로만으로도 이처럼 사회와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대중문화는 방송에서 한번 이슈가 되면 관련 분야에 크고 작은 사태가 발생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시청률을 염두에 둔 선정적 상업적 이야기 구성과 사물이나 인물에 대한 침소봉대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7]

6면에서 이어집니다.

약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무상이라고 무턱대고 병원다니기를 시작한것을 후회했다. ‘공짜보다 비싼것은 없다’는 는 속담이 가슴에 와 닿았다. 이렇게 의사와 환자가 보험금을 흥청망청 쓴 결과 건강보험은 만성적자에 빠지게 되었다.

복지국가건설을 지향하는 일본은 곧바로 현재도의 지속을 가능토록 하기위

해 ‘의료제도개혁대강’을 마련, 의료제도의 적정화를 꾀했다. 건강보험본인부담도 0%에서 1984년에는 10%로 올랐고, 그 후 20%를 거쳐 고이즈미(小泉純一郎)정권때인 2006년에는 30%로 뛰었다. 우리는 공짜가 당연한 세상에서 살아왔다. 식당에 들어가 “김치 더주세요”라는 공짜를 바라는 소원은 흥이 되지 않는다. 외국이라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식탁에 나오는 냉수 무짬지 등 꼬박꼬박 제값을 내야한다. 장에서 물건을

살때도 마찬가지다. 여러개 사면 덤으로 하나를 더 공짜로 받는다. 단골 손님이 되면 값을 깎아주는 공짜가 붙는다.

긴 세월 공짜를 즐겨 살아온 우리네 몸에 공짜 문화의 유전자가 맥맥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짚싸게 알고 이용하려는 포퓰리스트들이 있다. 그들은 정치적 해결을 피하고 대중영합적 슬로건을 내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기존 조직 보다는 대중운동 또는 마스크를 통

해 대대적인 선거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리고 정권을 잡게 되면 기독교익을 공격한다. 대기업의 해체 세제개혁 규제 개혁 등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

우리는 내년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된다. 벌써부터 선심공약 무상복지 공약 등 포퓰리즘이 들먹거리기 시작했다. 진정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은 그에 필요한 목적세로서의 증세도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7]

빈 라덴 사살 美 ‘밤의 전쟁’ 처음 이겼다

빈 라덴을 사살한 아보타바드(Abbottabad)침공작전은 미군이 한국전쟁(1950~53)에서 당한 밤의 공포를 6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극복해 냈다는 점을 확연히 말해주고 있다. 인민군과 중공군은 한국전에서는 늘 밤의 지배자들이었다. 이들은 밤을 통해 미군과 한국군을 공격했다. 밤은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정확한 포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敵)은 활개를 치며 미군 기지나 한국군을 마구 공격해 냈다. 중공군은 낮에는 나뭇가지를 뒤집어쓰고 산에 숨어 자다가 밤이 되면 팽과리와 나팔을 불어대며 미군에게는 6대 1, 한국군에게는 3대 1의 인해전술로 포위망을 형성하면서 야간공격을 했다. 유엔군에게는 밤은 공포 그 자체였다. 백마고지 같은 곳은 한국군이 9번이나 점령했지만 밤만 되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군은 한국전에서 당한 밤의 공포를 월남전에서도 당했다. 상당한 야간장비를 갖추긴 했지만 그래도 밤은 월맹군이 나베트공의 시간이었다. 한국전 때처럼 심하게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밤은 방어위주였으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야간전술은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빈 라덴사살작전은 밤을 낮처럼 활용할 수 있는 미군전술의 승리였다. 당초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빈 라덴사살작전을 최종 승인한 것은 4월 28일 목요일이었다. 그러나 특수전사령부는 금요일은 시내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토요일은 구름이 많이 낀다는 이유로 날짜를 일요일로 미루었다가 일요일에도 작전에 들어가지 않고 일요일자정을 넘긴 새벽 0시 5분에서야 작전을 개시했다. 달력을 살펴보면 4월 28일은 음력으로 3월 26일이었고, 일요일은 음력 29일, 그리고 월요일이 3월 그믐날인 30일이 되는 날이었다. 작전에 들어가기 전 어떠한 연

유에서인지 아보타바드 시내의 전기선이 끊어졌다. 도시는 온통 칠흑 같은 그림자 아래 들어갔다. 바로 그때 4대의 스텔스형 미군 헬리콥터가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 빈 라덴이 우거하고 있는 은신처로 날아들었다. 일차로 들이닥친 두 대의 블랙호크기로부터 뛰어내린 것은 25명의 초강력 특공대인 No.6 실(SEAL)대원이었다.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예비병력을 포함한 특전 병력을 실은 치누크헬기 두대가 도착했다. 이들은 총을 들고 경비하고 있던 두 명의 경비병과 3층의 빈 라덴 방으로 진입하는데 앞을 가로 막았던 여자 한명 그리고 빈 라덴의 아들을 사살하고 곧장 빈 라덴 방으로 들어갔다. 빈 라덴이 방패막이로 세운 30세 연하의 제3부인을 제치고 빈 라덴을 사살했다. 실 요원들은 빈 라덴의 집에 있는 컴퓨터의 정보기록을 모두 빼내고 서류와 정보분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몽땅 챙겨 40분 만에 작전을 완수하고 빈 라덴의 시체와 함께 철수했다. 타고 간 헬리콥터 한 대는 5미터나 되는 벽 때문에 이착륙에 문제가 생겨 현장에서 폭파해 버리고 나왔다.

침공대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서쪽에 위치한 잘라바드(Jalalabad)에서 발진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들은 파키스탄의 국경 지역인 페사와르(Peshawar)주를 넘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북쪽 약 50km지점에 있는

時 論



정 일 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 정치학 박사

파키스탄육군사관학교의 담벼락에 붙은 빈 라덴의 숙소까지 소리 없이 날아왔다. 4대의 강력한 엔진을 가진 헬기가 국경을 넘어 수도권으로 날아오는 동안 아무도 비행기소리를 듣지도 못했으며 어떤 레이더도 항적을 추적하는데 실패했다. 특공대가 40분간의 작전을 마치고 유유히 국경선을 넘어 어디론가 사라졌을 즈음 파키스탄 공군이 급거 출동했

으나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공격군의 일부는 아라비아해 어딘가에 떠있던 항공모함 칼 빈슨호로 날아갔으며 거기서 빈 라덴의 시신을 간단한 해군의 전을 거쳐 수장시켰다. 작전이 실시되는 동안 백악관상황실에서는 오바마대통령, 바이든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백악관대테러담당보좌관 등 군사최고책임자들이 비좁은 공간에 꼭 들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작전진행을 생생히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 중앙에는 공군준장 계급을 단 특수전사령관보좌관 마샬 웹브준장이 높은 의자에 앉아 현장과 교신하고 있었다.

빈 라덴사살작전은 침공군이 완벽한 밤의 작전을 수행할 장비와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뿐만 아니라 그 밤의 작전을 워싱턴본부에서 현장감독하면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증명했다. 미 국방부는 2004년 코만치헬기의 스텔스화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헬리콥터로 야간침투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헬기의 스텔스(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몰래 비행할 수 있는 체제)화를 해야 하는 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 이를 취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작전을 통해 보면 대대적인 헬기의 스텔스화(化)는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블랙 호크 치누크헬기에 소리를 거의 나지 않게 하고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외형을 꾸며 완벽한 스텔스기능을 갖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키스탄군이 전혀 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침공헬기는 칠흑 같은 밤을 저공비행으로 험한 산악 지역을 날아다녔다. 병사들이 쓴 야간장비도 단순히 야간작전을 할 수 있는 재래적인 적외선장비가 아니고 대낮 같이 밝은 환경을 만들어 작전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을 워싱턴에 즉각 중계하고 추가지시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장비였다.

60년전 한국전쟁에서 그렇게 별별 떨던 밤의 전투가 이제는 완벽한 통제 하에 이뤄졌다. 세계전투사상 처음으로 밤의 전투를 완벽한 과학장비로 이뤄낸 것이다. 빈 라덴작전계획을 세우면서 작전의 마무리 단계에서라도 파키스탄군을 참여시키려 했다. 그러나 정보유출의 우려도 있었지만 장비와 전술이 미국의 야간전술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파키스탄군을 도저히 동참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끝내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도 6·25전쟁이후 많은 야간전투장비와 전술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완벽한 디지털로 된 야간장비와 야간전술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양군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야간작전의 디지털화를 서둘러야하는 시점에 섰다. 밤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하는 자가 된 시대가 온 것이다. [4]

빈 라덴 사살 美 세가지 실수 저질렀다

미국 특수부대가 빈 라덴을 10년 만에 사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번 작전에서 3가지의 큰 실책을 하고 말았다. 첫째가 개발한 뒤 처음으로 등장한 스텔스 헬리콥터의 고장이며, 두 번째가 빈 라덴의 처와 그의 딸을 현장에 두고 나온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이로 인해 거짓말을 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작전 당시 은신처에서 도망간 빈 라덴의 아들이며 알카에다의 실력자인 ‘합자’도 문제가 된다. ‘합자’는 UN의 현장 감식을 주장하는 등 이슬람국가들을 선동해 앞으로 성전을 불사 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알카에다와의 전쟁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 특수부대의 ‘제로니모’ 작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달 2일 새벽 4시,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빈 라덴 은신처를 급습한데서 시작된다. 작전은 40여분 만에 끝났지만 그 때 당시 작전에 동원됐던 스텔스 헬리콥터 한 대가 갑자기 고장 나는 바람에 작전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원래 동원된 비행기 두 대에는 작전 수행 후

특수 부대원 79명과 특수전 한 마리 그리고 빈 라덴과 그들이 사용한 컴퓨터를 비롯한 비밀문서를 싣고 나오게 돼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대의 스텔스 헬기에는 그의 측근인 심복들과 빈 라덴의 부인과 아들들을 태우고 나오게 돼 있었다.

그러나 새로 선보인 스텔스 헬기 한 대가 고장 나는 바람에 계획된 작전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차질을 빚은 것이다. 이번에 동원된 스텔스 헬기는 미국이 비밀리에 제작한 최신에 무기로 ‘제로니모’ 작전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헬기가 고장이 난 것이다. 미군부대는 비밀누설을 막기 위해 바쁜 와



김 휴 선

- 본회 회우
- 전 MBC보도국 부국장
- 현 KOBACO공익광고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헬기는 폭파했지만 잔해를 준다 못 준다는 놓고 한 때 파키스탄 정부와 줄다리기를 했었다. 결국 파키스탄은 헬기 잔해를 미국에 돌려주기로 뒤늦게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 틈새를 노려 중국은 파키스탄과 돈독한 관계를 내세워 스텔스 헬기의 비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그동안 협상에 안간힘을 쓰며 물밑 접촉을 해왔었다. 미국 ABC방

송도 “중국은 빈 라덴 사살 작전에 투입했던 미군 스텔스 헬기의 잔해를 연구하고 싶어 하며 또한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를 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스텔스 헬기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

져 있던 최신 비밀무기다. 미군은 작전 당시 헬기가 난기류 때문에 기기 결함을 일으키자 이를 폭파해 흔적을 없애려했다. 그러나 잘려나간 꼬리 부분이 빈 라덴 은신처와 함께 공개되는 바람에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번 작전의 성패는 전깃불이 꺼진데다가 비행기까지 고장이 났으니 보지 않아도 작전은 짐작이 간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빈 라덴의 아들이면서 알카에다의 실력자인 22살 ‘합자’는 도망갔고 총상을 입은 그의 부인 ‘알사다’와 12살 딸 ‘사피야’를 현장에 두고 나온 것이 큰 화근이 됐다. 미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철수 한 뒤에 이들은 곧 바로 파키스탄 정보 당국에 넘겨졌고 파키스탄 정보팀(ISI)은 이들을 날 낚이 취조했다.

그때 당시 미국은 작전 9시간 만에 전 세계에 빈 라덴의 사살 소식을 발표했었다.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TV 맛집 프로그램의 실상과 허상

엄지 손가락을 치켜 들면서 “역시 이 맛이야”를 외치고, 숟가락에 가득담긴 찌개를 입에 넣고는, 땀을 비오듯이 흘리는 손님을 우리는 진짜 손님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들중 상당수는 동원된 엑스트라 였다는게 아닌가. 황당하고 억울하다. 그래서 물어 물어 애써 찾아간 맛집의 음식맛은 그냥 그렇고, 서비스는 엉망이었던 기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번 가지고 있을 것이다.

TV맛집, 왜 음식 맛이 없을까? 지난번 전주영화제에 출품돼 장편 경쟁부문 JIFF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트루맛쇼’가 바로 TV에 등장했던 음식점의 음식맛이 신통치 않았던 이유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다. 이 다큐는 “나는 TV에 나오는 맛집이 왜 맛이 없는지를 알고 있다”는 코멘트를 시작으로 TV맛집 프로그램이 방송사와 브로커를 통해 사전 조작과 담합에 의해 제작되고 있음을 관객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 다큐를 만든 김재환씨는 전직 MBC PD였다. 그는 불법적인 돈거래를 통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협찬대행사들이 얹힌 먹이사슬을 가감없이 고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그는 일선에 식당까지 차리고 실제로 출연을 섭외하는 과정을 직접 몰래 카메라에 담았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TV맛집 프로그램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첫째, TV 맛집프로는 대부분이 외주 형식을 통해 제작된다. 공중과 방송사들은 일정비율의 프로그램을 외부의 프로덕션회사에 맡겨 제작하도록 방송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영세한 제작사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방송사들은 시청률도 올리고 비용도 절감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다. 적은 비용을 투입해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다. 제작비가 짜게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둘째, 프로덕션측으로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경쟁사들을 제치고 프로그램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많은 프로를 수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작실비도 건지지 못할 정도의 제작비라면 제작비의 부족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보충하려 할 것이다. 여기서 협찬의 필요성이 절실히 지는 것이다.

셋째, 그동안 TV 맛집 프로그램에 등장한 인근 음식점들의 성공을 지켜 보는 경쟁 음식점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된다. 달콤한 유혹이 등장하는 것이다. 돈을 주고서라도 TV에 한번 등장하기만 하면 대박을 터트릴수 있다는 유혹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협찬 브로커인 것이다.



신 대 군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총주·대구 MBC사장

있을 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음식점은 TV에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란 간판을 용감하게 내걸고 손님을 끄는 음식점을 찾게 되는지도 모른다.

최근 우리에게만 반가운 소식 한가지가 들려 왔다.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 ‘미슐랭’이 한국판 책자를 발

드가이드북(레스토랑과 호텔),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린 가이드북에 소개된 관광지중 별세계(최고 등급)를 받은 곳으로는 경북궁과 창덕궁, 북촌, 수원화성, 합천 해인사, 안동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불국사와 석굴암, 전주 한옥마을, 제주 한라산과 일출봉, 설악산, 송광사, 순천만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별 세계를 받은 곳은 모두 23개 지역인데 이 지역들을 보면 미슐랭이 어떤 지역을 선호하는지 알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베어있는 곳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수 있는 것이다. 전국의 재래시장이 관심 끌었고, 애환이 서려 있는 시장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허름하지만 맛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식당들이 포함돼 있다. 동대문의 ‘할매 원조 닭 한마리집’은 서울 생활 50년인 필자도 처음 듣는 이름이고, ‘낙원 떡집’ 등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맛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번에 선택된 식당중에서 미슐랭이 취재해 갔다는 것을 아는 곳은 한곳도 없었다. 그들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특급 호텔 레스토랑이나 TV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맛있다고 칭찬했던 맛집들이 빠진 것을 우리는 그냥 넘겨 버릴수만은 없는 것이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다큐 프로그램에게 고발당한 방송사들 가운데 MBC가 가장 먼저 소송에 나서는가 하면 김재환PD는 이미 서울시내 10여개 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미슐랭 가이드는 철저한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한다. 올해 별세계 받은 레스토랑도 내년엔 별이 떨어져 탈락해 버릴수도 있다. 언제 취재해 갔는지도 모르게 비밀주의에 입각, 엄격하게 자격을 심사하는 그들의 원칙이 85년동안 세계 최고의 가이드북이라는 명성을 유지시켜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 가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맛집 프로그램도 시청자들에게는 절실히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다. 소비자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여러분 방송사의 소비자 고발프로에 등장 시킬 용기를 갖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각오가 없다면 아예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용기를 시청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4]



한국판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동대문의 ‘할매 원조 닭한마리 집’의 닭한마리.

방송사·외주제작사·협찬사 먹이사슬 돈거래 사전 담합 엑스트라 동원 일쑤

이와같은 갑과 을 사이의 먹이사슬이 바로 우리나라 만큼 음식점이 많은 나라도 없게 만들었고, TV에 나오지 않고는 음식점도 ‘못해먹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심경은 착잡하다. 여행하면서 밥을 먹지 않고 돌아 다닐 수는 없고 어느 음식점에 가야 제대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수

간했다는 소식이다. 한국판 미슐랭 가이드는 5명의 현장 답사요원이 지난 1년동안 주요관광지와 문화유적, 숙박시설, 음식점을 돌며 수집한 정보를 450페이지의 책자에 실고 있다. 1926년에 처음으로 여행가이드북을 내기 시작한 미슐랭은 우리에게 이름이 친숙한 타이어 제조회사다. 이들이 펴내는 안내책자는 그린 가이드북(여행가이드)과 레

6면에서 이어집니다.

- 특수부대가 그의 은신처에 들어갔을 때 경호원들과 1층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오사마 빈 라덴은 3층에서 무장을 한 채로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를 인질로 잡고 강력히 저항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 교전 끝에 빈 라덴을 사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지난날 3일, 미국은 많은 자료를 발표하다 보니 잘 못 된 점이 있었던 것이라며 1차 발표를 수정해 다시 발표했다. 추가로 발표한 내용은 1차와는 다른 점이 많았다.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의 작전 요원이 은신처에 들이닥쳤을 때 총을 쏘며 강력히

저항했다고 했는데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정정 발표를 했다. 또 특수부대 ‘네이비실(Navy Seal)’이 3층에 있던 빈 라덴의 방에 들이닥쳤을 때 빈 라덴의 부인이 달려들었다고 했다. 그 여성은 작전요원들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았지만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작전 수행 중 사망한 여성이 빈 라덴의 부인이라는 초기 발표 내용도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사람은 빈 라덴의 부인이 아니라 다른 방에 있었던 또 다른 여성이었다. 두 여성 중 누구도 인간 방패로 쓰이지는 않았다고 전날 발표를 반복했다.

미 백악관은 초기에 잘못된 정보가 나간 이유가 “급박한 교전 상황에서 세세한 내

용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의 정보를 매우 급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순차적으로 조각조각 들어온 정보들을 종합한 결과 초기 발표 내용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이 여럿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작전 후 철수 하면서 현장에서 빈 라덴의 부인과 그의 딸 사피아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채 파키스탄 정보팀에 넘겨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나온 증언이 발표를 번복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9·11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은 사살됐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10년간 미국은 전비(戰費) 등으로 많게는 6조 달러(약 6516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

아 부으면서도 이번 작전을 깔끔하게 처리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따라서 작전 도중 도망간 아들 ‘함자’를 비롯해 그의 아들들과 참모들은 비무장한 아버지 빈 라덴을 암살한 것은 국제법상 위반이라며 미국을 비난하면서 유엔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날이 갈수록 이슬람국가들은 성전을 앞세워 보복을 다짐하고 있다. 알카에다의 지부를 자처하는 이라비야반도 알카에다’가 지난11일 오사마 빈 라덴 사후 지하드(성전)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작전을 수행한 미국의 신무기 개발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이로 인해 전 세계에 대해 거짓말을 한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4]

‘금감원’ 존폐문제 제대로 안다뤄

부정부패사건이 그칠 날이 없다. 웬만한 것에는 “또 해먹었어?”라며 체념하는 국민들이 이번 부산저축은행 부패 사건에서는 치를 떨고 있다. 영업정지를 코앞에 두고 임직원과 친족 등이 1,056억 원의 예금을 빼가는 파렴치의 극치를 보였다. 영업정지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이다. 격분한 여타 예금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전·현직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고소했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주주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어기고 120개의 불법 특수목적법인(SPC)을 차려 5조3,000억 원의 ‘묻지마’ 불법대출과 2조4,533억 원의 분식회계로 7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금융부패를 일으켜 박연호 그룹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 21명이 기소되었다. 분식회계는 1999년 대우그룹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저축은행 5개를 거느리며 자산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해 업계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부실에 빠뜨린 중대한 원인은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감사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을 감사하니 여러 경로로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가 부실을 알았다면 저축은행의 감독기관에 대해 왜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정치권의 외압설이 설득력을 얻을 만한 정황이다. 이런 상황은 일부 공직자들이 나라를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금감원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기관을 통합해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1999년 1월 설립되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쉽게 말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각종

인·허가, 규제, 불공정거래 조사, 제재를 담당하는 무소불위의 조직인데 이번 사건으로 그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최근 비리로 구속된 전·현직 금감원 간부가 12명이다.

언론은 극소수만이 금융감독원의 존립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동아일보는

신문시평



김영환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의 온상임이 드러난 조직에 자체 개혁을 주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썼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2001년부터 1, 2년 주기로 정기검사나 부분검사를 했지만 비리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비은행검사국장 출신은

환은행을 외국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매각한 의혹의 핵심부서로 도마에 오른 조직이다. 환 헤지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KIKO 판매 감독 소홀로 많은 중소기업을 파산시킨 전력도 있다.

금감위와 금감원으로 나눈 옥상옥 지적도 모자랐다. 대형사건에 의당 따르는 국정조사 요구를 언론도 야당도 외면하고 있다. 호남의 유력한 재벌의 친척인 박연호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광주 명문 고교의 인맥이 과다하게 포진되어 유착 의혹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중앙지들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부패 방조에 대한 대가로 금융감독원을 해체하는 폭탄적인 방법을 써야 공공기관에게 부패를 막는 준엄한 경고가 된다. 감독권은 종전대로 한국은행이 갖거나 예금보험공사와 나눠 갖거나 금융감독청을 신설해도 된다. 공무원윤리성이 강하다. 관치금융 못지않게 무서운 것은 자율을 위장하여 법을 우롱하는 민간 조직의 부정부패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의 2주기가 지났다.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자는 민주당이라면 정치 쇼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 갈구했던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에 투자를 불태워야 한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다. 부패를 단절하는 길은 꼬리를 무는 기관들의 상호감시체제 작동이다. 공직자들의 뇌물수수에 ‘대가성 입증’ 운운하면서 한계선을 설치하는 司正 행태가 존재하는 한 부패사건은 근절되지 않는다. 뇌물은 대가성 입증 불필요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근본적인 부패 고리의 단절에 미봉적이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한다. 그들도 공생하기 때문인가? [4]

일부紙만 ‘특권동맹’ 수술 필요성 제기 특정고교 인맥 유착 지적도 거의 없어

5월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 5곳 중 4곳에 근무하던 금감원 출신 감사들은 불법여신 집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분식회계를 공모했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저축은행 감사로 나가고, 현직들은 자신의 미래 밥그릇을 생각하며 이들과 유착해 화(禍)를 키웠다. 정부는 대주주, 임직원, 감독당국, 거액 예금주, 정치권이 한통속으로 돌아가는 부패의 ‘특권동맹’을 깨는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구조적 비리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면 ‘금융강도원’이다. 금감원은 거의 ‘범죄집단 혐의’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1999년 출범 이래 12년간의 누적 비리가 폭발하듯이 분출하면서 정·관계 비호 의혹도 나온다”고 맹공격했다. 한국일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모럴헤지드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윤리의식은 가히 바닥 수준이다. 비리

퇴직 후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대한 금감원 검사 때마다 검사반원 구성과 검사결과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매달 300만원씩 2억1,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정직한 회계는 성립할 수 없었던 것이다.

금감원의 금융기업 감독 독점에 대한 언론의 지적은 대체로 미흡했다.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이 1,500명의 직원으로 자산 4,700조원에 이르는 대한민국 3,000여 개의 금융기업을 혼자 주무르고 감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금융 산업의 개별적인 특성을 무시한 채 은행 증권 보험을 뭉뚱그려 합친 것부터 잘못된 처사다. 일례로 금감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코스닥시장은 먹고 튀고 상장 폐지되는 파렴치한 기업 사냥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체개혁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부족했다. 금감원은 BIS를 하향 조작해 외

광고주협회 ‘나쁜 언론’ 5개사 공개

광고주협회는 지난 3월 16일부터 2달간 사이버언론신고센터를 통해 광고·협찬을 강요하는 언론사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이 중 회원사의 피해가 중복되는 프라이م경제, 한국증권신문, 일요시사, 시사서울비즈, 메디컬투데이 등 5개사를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협회의 사이버언론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보면 이들 5개사는 1)기사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이를 보도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기업에 광고·협찬을 강요하거나 2) 허위 사실 및 근거 없는 음해성 기사를 게재 후 광고·협찬 제공시 기사를 삭제하겠다는 거래를 제안하거나 3) 이미 종료된 사건 기사를 일부 수정하여 마치 새로운 기사처럼 부풀리기한 후 광고·협찬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유사언론행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로 인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정상적인

광고마케팅 활동까지 방해받고 있으며, 특히 홍보·광고 담당자들은 협박성 막말에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회원사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들 5개사에 대해서는 회원들과 함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 검색 제한을 요청하고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사이버 또는 유사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는 발행정지, 등록취소 등 퇴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광고주협회가 선정해 공개한 ‘나쁜 언론사’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한항공이 이

언론가 소식

들 언론사 다섯 곳 중 하나인 온라인매체 프라이م경제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18일 “프라이م경제에 대해 이달 안에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프라이م경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0여 건의 대한항공 관련 기사를 쓰면서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 했다.

다른 대기업들도 대한항공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재계 순위 10위권의 한 대기업 홍보담당 임원은 “대한항공이 소송에서 이기면 유사한 피해경험이 있는 다른 대기업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사이버언론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막심해 이번 소송은 관심 대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오리

온그룹도 ‘나쁜 언론사’로 지목된 주간지 일요시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활용교육확산 방안 발표

문화체육부는 신문활용교육(NIE)의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3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문활용기본계획은 학교현장중심의 NIE, 사회NIE활성화, NIE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에 걸쳐 9개 세부 과제를 담고있다.

편집인협회보 격월간으로 정형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는 회원들의 의사교환의 장을 확대하고 동정란을 강화한 편집인협회보를 기존 대관 형태에서 소책자 형태로 변경해 발행했다. 회보 편집위원으로는 김성수(연합뉴스 상무이사) 편협 부회장을 비롯 정동식(경향신문 전무) 김성

11면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냄새’ 전하는 다큐物 돋보여

요즘 우리 사회는 온통 짜증나는 일들로 덮여 있는 것 같다. 신문을 읽어도 짜증이 나고 방송을 시청하면서도 울화통이 터질 때가 많다. 긍정적으로 보고 비판을 삼가라는 가르침과 깨우침을 술하게 받았는데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방송시평을 쓰면서도 뭔가를 꼬집고 문제를 지적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했다는 반성을 해본다. 그래서 이번 호 방송시평에는 인간미가 물씬 풍기는 방송, 사람 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칭찬하기로 작심했다. 인간미란 단어를 생각하다가 ‘인간극장’이란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인간극장’은 우리 주변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를 다루는 휴먼다큐미니시리즈”라고 제작진은 홍보한다. ‘인간극장’은 KBS 1 TV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50분에서 8시 25분까지 방영된다.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부작으로 방영된

‘미스터 농사꾼 장재혁’을 모니터했다. 배나무 과수원과 난 재배농장을 경영하며 가꾼 난을 판매하는 가게도 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사는 시골 농업인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다.

가족이 서로 가슴에 배꽃 다발을 꽂아 주는 도입부부터 심상치 않은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프로그램 내내 신뢰와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 관계가 흐뭇한 장면으로 연출됐다. 그들이 하는 일보다 정감이 넘치는 가족관계가 따뜻했고 그들의 대화가 드라마보다 더 아름다웠다.

밤늦게 까지 일하는 아들을 찾아온 어머니가 “자 가자, 이제 그만 하자”고 챙기자 아들은 “조금만 더하면 되는 데” 아쉬워하면서도 하던 일을 접는다. 어머니 마음을 읽는 아들의 모습이 참 효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養志)이라고 한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두 손을 꼭 잡고 어두운 길을 걷는 모자의 모습은 명화의 한 장면 같았다.

이와 비슷한 정경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 차례 감명을 준다. 역시 논리를 펴고 악을 쓰면서 소리질러대는 드라마 작가들에게 참고하라고 권하고 싶은 제

작이었다.

꽃을 팔면서도 팔려간 꽃이 죽을까봐 걱정하는 25살의 총각 농사꾼은 힘든 일을 바쁘게 하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농업은 괜찮다. 농업해도 괜찮다. 농업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모델을 보여 주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면서 농사일을 가르쳐주신 “아버지 만큼만, 아버지

방송시평



호천웅

• 본보 편집위원 • 수필가
• 전KBSLA지국장

죽고 한그루만 살아 남았을 때 “완전한 실패는 아니거든요. 하다보면 언젠가는 되겠지요”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농부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요”라고 20대 같지 않은 말을 던지는 가하면 “혼자서 크는 나무는 없다고 해요”라면서 가족들의 도움과 격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다. 재미도 있고 시청한 뒤에 생각하고 배울

스럽게 할 때가 많다.

그리고 중학생인 아들은 잘 먹지 못해 체력이 달리기는 하지만 악바리로 연습에 몰두한다.

야구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하면 프로 선수가 되겠다는 야무진 꿈에 매달린다.

처절하게 생활을 꾸려가는 아버지의 마음, 철없이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어린 딸의 두려움, 오직 야구선수가 되겠다는 중학생의 고뇌 등이 현실감 있게 드러난다. 야구 클럽과 야구화가 낡았으나 아버지에게 이야기도 못 꺼내는 아들의 고뇌, 그리고 우연히 이를 알고도 가슴만 아픈 아버지의 삶을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다.

이런 사람들,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못사는 이들이야말로 사회가, 나라가 일차적으로 돌봐야 한다. 한정된 복지 재원으로 보편적 복지나 전학생 무상 급식 등을 떠드는 이들에게 이들에게 구해주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전부는 아니라도 방송사 등의 언론사가 이런 사례들을 찾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등도 이들을 찾아 내고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생활고를 겪는 가정의 상당수가 아내의 가솔이나 남편의 부재로 인한 경우인데 어려울 때 일수록 가족이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는 사회풍조가 아쉽다고 하겠다. 한 신문 인터뷰기사에서 읽은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은 이혼 사유가 아녀, 여자가 돈 벌 사유지”라는 말을 떠올려 본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 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귀한 방송 프로그램은 챙겨보니 생각보다 많았다.

‘사랑의 리퀘스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사랑의 가족’, ‘인생 열전’, ‘다큐멘터리 3일’, ‘SBS의 희망 TV24’, ‘MBC의 7일간의 기적’, ‘EBS의 나눔 0700’ 등이다. 그러나 흐뭇한 이야기들은 주요 시청 시간대에 당당하게 자리 잡기보다는 대부분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은 시간대에 숨어 있었다. [본문]

KBS ‘인간극장’ 농사꾼 얘기 등 불만 주요시청 시간대에 편성 안돼 아쉬움

같은 농업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요즘 아버지들이 부러워할 부자 관계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들에게 자기 일을 가르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을 잊겠다는 아들이 이 세대에 얼마나 될 것인가? 아버지의 건강 문제, 부자간의 의견 차이 등으로 어려움과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어려움은 참고 극복하며 갈등은 사랑과 기다림으로 풀어가면서 행복을 가꾸고 꿈을 키워가는 모습이 잔잔한 그림으로 그려진다.

미스터 농사꾼 장재혁은 아주 쉽고 편한 말로 많은 명언을 들려준다. “꽃을 잘 가꾸려면 꽃을 보는 시선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대화를 해야 해요”라든가 “식물은 주인 발짝 소리를 듣고 큰다고 합니다”라는 등의 명언을 풀어 놓는다. 외출했다 늦어 호접란의 일부가 말라가자 그는 양복 차림 그대로 물주기 작업에 매달린다. 그러다 보니 옷과 구두가 엉망이 되자 “옷은 더러워지면 빨면 되는데 식물은 죽으면 살리지 못하지!”라고 독백한다.

지난해 심었던 무화과 묘목이 모두

것도 적지 않은 프로그램이었다.

얼마 전 한 종교지도자가 ‘동행’이란 TV 프로그램을 보고 감명을 받아 후원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현장프로 동행’은 KBS 1에서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방영된다.

‘동행’은 대한민국 하위 1%의 삶과 현실에 밀착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 역시 더불어 살아야 할 동반자라는 것을 시청자들과 공감하고자한다는 것이 제작의도이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들이 직면한 삶의 고비를 함께 이겨내는 삶의 동행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한다.

지난 5월 19일의 ‘동행-사과장수와와 낚은 야구화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했다. 사업하다 빚지고 이혼한 남자가 어린 남매를 키우며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낚은 트럭에 사과를 싣고 다니며 파는 게 생업인데 수완이 모자라 잘 팔지 못하고 과일 값을 제때 갖지 못해 도매상에서 물건 대주기를 거절하자 대리운전을 하기도 한다. 7살 난 딸 재이는 외로움이 무서워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매달려 아버지를 당황

10면에서 이어집니다.

우(SBS기획실장) 부회장과 이강렬(국민일보 논설위원) 차경호(MBC기획조정본부장)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편협은 또한 5월 18일부터 홈페이지(www.editor.or.kr)를 개설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세미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본회 회우)은 지난 5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화 홀에서 ‘글로벌 시각에서 본 한국 언론의 재난 보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토론회에는 김춘식 한국외대 교



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토 료지 NHK 서울지국장, 우에 이치로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 마크 맥도날드 인

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서울 특파원 등의 외신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 언론에서는 오재석 연합뉴스 논설위원실장, 문갑식 조선일보 선임기자, 이선재 KBS 취재주간, 이연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관훈클럽, 주한미 대사 토론회

관훈클럽(총무 정병진)은 지난 5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를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미국의 외교정책 특히 한미동맹, 북미관계, 6자회담, 한

미 FTA 비준문제 등 우리의 중요 관심사에 관해 토론회를 벌인 이날 행사에는 남정호 중앙일보 국제선임기자, 이강덕 KBS정치교부장, 이승철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영연구기금, ‘언론위기 극복전략’ 출판

관훈클럽과 신영연구기금은 최근 언론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언론과 뉴미디어’ ‘기지는 어떻게 변해야하는가?’ (손태규 교수 저) ‘디지털 생태계의 뉴스 생산 모델(김사승 교수 저)’ 등 두 권의 단행본을 출판했다. [본문]

부지런한 ‘글밭 농사꾼’… 人間味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35〉

회우초대석

鄭在

인터뷰 글·사진 이규

짧은 봄을 밀어내고 초여름 비가 부슬 부슬 내리던 지난 5월 20일 낮, 정재호(鄭在虎·81) 본회 논설위원을 여의도의 한 해물탕집에서 만났다. 그 자리엔 이억순(李億淳·76) 본회 회우, 안영모(安英模·70) 월간 '憲政' 주간, 유재철(劉在喆·67) 본회 회우가 합석했고, 10여 분 뒤 이원홍(李元洪·82) 전 문공부장관이 참석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언론인들이자 우리시대 논객들의 오찬자리가 됐다.

‘고바우 영감’의 우람한 코만큼 돋보이는 ‘정 코’ 정 선배는 막걸리 잔을 권하며 특유의 달변과 유머로 분위기를 주도한다. ‘정 코’의 달변에 이억순 선배가 까칠하게 태클을 걸어 ‘정코’가 좌지우지하는 대화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간간히 메모를 하자 ‘실버파이팅’ 인터뷰 자리인줄 알아챈다. 담 넘어 툴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지 아닌 ‘논치의 달인’들이 아닌가.

“정 코는 화합의 달인이다”

내친 김에 “‘정 코’ 정재호는 누구인가? 한마디씩 멘트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세계일보 주필을 지낸 이억순 숭실공생복지재단 고문은 “정 코는 X같은 물건이다”라고 강하게 한방 날린다. ‘체상 참 X같다’고 토해내는 울분의 의미는 물론 아닐 터. 전립선비대증에 양기마저 시들해져 소변보는 기능밖에 못하는 게 대부분 노인들의 거시기인 데 ‘정 코’는 헝기 넘치는 남성의 심벌처럼 정치평론가로 왕성한 집필을 하고, 녹슬지 않은 시대감각을 지녔다는 함의가 담겼다. “‘정 코’야말로 우리시대의 X노릇을 제대로 한다”고 강조한다.

문득 어느 작가의 소설 한 대목이 떠오른다. <통유리 너머 마당에서 수놓 시추 한 마리가 발정난 거시기를 덜렁거리며 암놈 시추 꿈무늬를 뒤쫓고 있다 간절하고 숨찬 열정이다. 뒤집어 생각하니 X이란 게 죽었나 싶으면 어느새 무쇠 가래나 성실한 모습으로 불쑥 되살아나 씨감자 파종하기 좋게 텃밭 일궈놓는 짙짙한 연장이지 않던가. 세상살이가 X같지만 하다면야 더 바랄 게 무에 있겠는가 그 존재만으로도 벌써 엄청난 위안이며 희망이지 않은가. 연인의 지궁 속을 힘껏 헤엄쳐 다니다 진이 빠져 땅바닥에 퍼져버린 수놈의 축 늘어진 등을 암놈이 유순히 핥아주고 있다 하, 업숙하고도 황홀한 광경이다.>

침묵을 지키던 이원홍 전 장관은 “정 코는 화합의 달인이다”고 정의한다. 이 전 장관과 정코 선배는 각각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특파원으로 도쿄에서 만나 취재경쟁을 하며 우정을 쌓은 사이. 이 전 장관이 한 살 연배다. “정 코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언론계 선후배와 후배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했고, 정치현장에서는 중재와 화합의 달인으로 얹힌 정국의 실마리를 풀었으며, 요즘도 친구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며 소통한다”고 부연한다.

이 전 장관이 들려주는 ‘정 코’ 일화 한 토막. 1971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정재호는 선대가 물려준 고향 과수원을 판 돈 5000만원이 든 저금통장을 전 재산이라고 공개했다. 당시 5000만원이면 큰돈이다. ‘정 코’는 그 통장과 도장을 후배 언론인에게 맡기며 필요한 곳에 쓰라고 했다. “‘정



“일에 미친다는 것은 행복이다”고 강조하며 정치평론을 꾸준히 집필하고 있는 정재호 본회 논설위원.

왕성한 집필활동… 녹슬지 않은 시대 감각의 화려한 언변 반경 큰 거동… 뛰어난 노래실

코’는 돈에 관해 깨끗한 인물이다”고 강조한다. ‘정 코’가 쓰라고 준 통장을 그 후배는 끝내 한 푼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

‘박통’이 붙여준 ‘정 코’ 별칭

참석자 가운데 막내 격인 유재철 한림대 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세계일보 편집국장)는 “정 선배는 글밭을 일구는 농부”라고 정의한다. “정 선배의 호는 문전(文田), 동남(東南), 두암(斗岩) 세 가지지만 텃밭을 일군다는 ‘글밭’이 가장 어울린다”고 덧붙인다. “여든이 넘었으면 쉴 만도 한 데 밭을 일구는 농부처럼 부지런하게 집필활동을 하는 모습은 후배들의 귀감이 된다”고 말한다.

전 서울신문 워싱턴특파원과 세계일보 주필을 지낸 안영모 ‘현정’ 주간에게는 멘트 대신 ‘나의 정재호 톤’(정재호 저 ‘대통령의 초상’ 추천 글)을 인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인물’이 없다고들 말한다. 큰 그릇에 인간미 넘치는 그런 ‘인물’ 말이다.

하기야 요즘처럼 사(私)를 앞세우고 인성이 메마른 때, 타(他)를 보듬고, 옹고 그를 가리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그러면서도 멋까지 아는 낭만파 인물을 만나기란 쉽지 않을 터이다. (중략) 지나간 시대에도 ‘인물’이요, 이제 퇴역의 한 자락 속에서도 여전한 ‘인물’이 우리 곁에 있다.

우리는 그를 ‘정 코’라고 부른다. 코가 우뚝, 우람한 ‘코’의 모양새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지만 ‘코’ 이상의 따뜻함과 인간미를 과시하는 만년 청춘의 사나이이다. 그가 아직도 우리 곁에 있어 종횡무진 of 어휘로 웃음과 해학과 때로는 걸쭉한 농담을 흘리고 있음은, 이 메마른 세상에 찌든 우리에게 분명 하나의 낙이요 행운이다>

“화려한 언변과 반경 큰 거동의 뒤편에는 흘러간 옛 노래를 뽑아 제철 때 눈동자에 고이는 이슬처럼 다정다감한 감정의 분출이 ‘정 코’의 진면목”이라고 평가한다. - ‘정 코’ 별칭은 누가 붙여주었나요?

“국가재건최고회의(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 출범될 때까지 존속) 출입기자시

절인 1963년 박정희 의장을 수행하여 유성에 들렸어요. 그 날 저녁 취재진들과 조출한 만찬이 있었지요. ‘박 통’의 주안상이 늘 그렇듯 안주 몇 가지와 막걸리였지요. ‘박 통’이 내게 술잔을 권하며 “정 기자는 코가 듬직하다”고 말했어요. 그 뒤 ‘정 코’는 애칭이 돼버렸죠”

- ‘정 코’ 별칭에 거부감은 없는지요?

“내 이름 보다 더 많이 불러 거부감 보다 친밀감을 느낍니다”

직접 운전하며 헌정회 출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절반의 인터뷰’는 이루어진 셈이다. 정 선배와 함께 국회의 사당 안에 있는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사무실을 향하면서 오늘 참석자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지 궁금해 물었다. “특별히 약속하지 않고 짬나면 전화해 만나는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 2층에 위치한 헌정회 부회장 사무실은 신록이 어우러진 정원과 한강이 굽어보이는 별장 같은 공간이다. -사무실에는 1주일에 몇 번 나오시는지

뜻밖의 만년 청년

鄭在虎

-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논설위원
- 국회의원 3선
-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현)

본문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다섯 거 의 나오죠. 빵거미가 내릴 때까지 집필을 하며 보냅니다” 책상에는 마감 시간을 앞 둔 ‘현정’ 육필원고가 어지럽게 널렸다. 일 산에서 여의도까지 손수 운전으로 출퇴근 한다는 것.
-기고는 주로 어디에 하시는지?
“매월 월간 ‘현정’에 ‘편집인 포커스’ 라는 정치평론 칼럼을 연재하고, 월간 ‘경제풍월’에 ‘원로 정치논객 칼럼’ 난을 마련 해줘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신문잡

해라 나랏말도 제대로 깨치지 못한 어린것 이 시집을 내겠다고 하니 집안에 난리가 났죠. 식음을 전폐한 외동아들이 끈질기게 조르자 어머니가 출판비를 내 주셨죠. 당시 집 한 채 값인 큰돈이었어요.
-자비 출판비를 내 줄 정도면 집안이 부 유했던가 보죠?
“아버님이 공작에 계셔 넉넉한 편이었습 니다.” 시집이 나온 뒤 월간 대한공론(大韓 公論)에서 ‘시 몇 편을 골라 신고자하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일차 내사 바란다’는 쪽지를 받았어요. 이튿날 검은 학생복차림 으로 사무실을 찾아가니 “정재호 선생 심 부름 왔는가” 물기에 “제가 정재호...”라고 말끝을 흐리자 소스라치게 의자에서 일어 선 분이 박목월 선생이었어요. 검정두루마 기를 걸친 아연 얼굴의 박 시인의 자상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현안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 된 한 모임. 왼쪽부터 金鼎權 공화당 대변인, 李萬燮 정책위 의장, 가운데 鄭在虎 유정회 대변인, 金守漢 신민당 당무위원, 오른쪽 뒷모 습은 누구인지 확실치 않다.

정치평론가 력 아직 쟁쟁

지 등 청탁이오면 집필하지요”
-언론인에서 정계에 입문, 세 차례 유정 회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했다. 후회는 없는지요?
“저는 제8대 백두진 국회의장 비서실장 겸 대변인, 유정회 대변인, 홍보위원회 위 원장 등 홍보업무를 하면서 언론인과 소통 하여 늘 현역기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 고, 지금도 언론인의 긍지로 정치논평을 하 고 있습니다. 유난히 3자와 관계가 깊어요. 헌정회 대변인 3차 중임, 월간 ‘현정’ 편집 위 의장 3년, 사무총장 3년 역임, 헌정회 부회장도 세 차례 연임이지요.”
다양한 경륜을 펼치는 가운데서도 그는 시사주간지 ‘SEOUL POST’ 회장, ‘INSIDE WORLD’ 회장, 중앙홍보문제연구소장 등 활자와의 인연을 이어왔다.

청소년 시절 시집 두 권 자비출판
-시집 ‘향수(鄉愁)’를 출간한 것은 몇 살 때였나요?
“열 일곱 살 때였지요. 해방 된지 서너

박 시인의 추천으로 게재된 시는 ‘꿈’ 이었다는 것. ‘꿈은 샘솟는 사슴의 허바다 / 밤마다 나를 찾아 준다 / 밤이면 사슴이 반가워 / 오늘도 달 지기를...’ 6·25 때 불타버렸지만 그런 가락으로 시작 된 것으 로 기억된다고 한다. 이듬해 그는 ‘폭포수 (瀑布水)’라는 제2시집을 출간했고, 낡은 시집 한 권이 꿈 많은 청소년기의 꿈으로 남았다고 한다.
-신문기자가 된 계기는?
“우연이랄까, 아니 필연일수도 있지요. 6·25 때 대구임시수도 시절 대한통신 간 부들과 구상, 마해송, 이해광 씨 등 문인들이 적산가옥인 저희 집 2층에 기거했어요. 통신수단이 미비한 시절이라 연락해주는 일을 하고 원고정리를 해주면서 졸지에 ‘중군기자’가 돼버렸죠. 그 인연으로 세계 통신, 민국일보, 서울신문 정치부 기자, 경 향신문 정치부장을 거쳐 정계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등산으로 건강 다지고 즐겁게 산다”
-건강을 유지하는 특별한 비결이라도
“학생시절 농구선수로 활동하는 등 운동 에 취미가 많았죠. 젊었을 적 등산을 할 때 먼 주변에서 ‘정비호(鄭飛虎)’라고 할 정 도였죠. 요즘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산행 을 합니다.”
-담배와 술은?
“예전에 사설을 쓸 때면 줄담배를 피울

生活斷想

再生모임



이선희

- 본회 회우
- 전 경인매일 논설위원

옛정이 되살아날 정도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는 옛이야기 와 야담, 술잔 나누기 등으로 웃음꽃을 피 우기 때문이기도 하 다.
밤은 어떤 것일까, 크리스마스 때는 거 룩한 밤을 외친다. 그 리고 혁명가는 밤에 모의하여 혁명을 일 으키기도 한다. 그런

가 하면 옛 사우들이 모인 밤은 지난 날 회사 생활을 떠올리며 옛 사우들 간에 정을 재확인 하는 재생의 밤이 된다고 보겠다.

비록 퇴직은 했지만 아직은 살아 있 으니 우리는 재생모임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이다.

그런데 죽은 아내의 모습이 재생되 지 않아 애태우는 사람도 있다.

언젠가 시청부근 지하도를 지나다가 어떤 사진작가의 작품전시실을 들여다 본 일이 있다. 전시실에 들어가 반바 퀴 째 돌때 작가인듯한 사람이 다가와 서 “이 사진들의 모델은 한 사람입니 다. 살아 있을 때부터 죽어서 기억이 희미하게 남을때까지의 모습들입니다” 라고 한다. 사진은 수십점이나 됐다. 너무나 새로운 일이라 처음부터 다시 사진 한장 한장을 살펴봤다.

다시 말하면 이 사진전은 아내를 지 극히 사랑하는 한 남편이 아내가 죽은 뒤 그리움에 못이겨 생전의 또렷한 사 진에서 죽은지 한달 뒤의 사진... 두달 뒤의 사진... 일년 뒤의 사진... 오년뒤 의 사진...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사진 원판은 하나인데 이 사진 작품 은 남편의 기억 속에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차츰차츰 사라져가는 모습을 담 은 것이다. 영혼의 기록사진이라 할 수 있겠다.

수십년을 같이 살고 또 사랑했다면 죽었다고 해서 그 모습이 기억 속에서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바쁜 세상살이를 하다보면 가끔 잊고 도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 된다.

동문회, 동우회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정을 재생하자는 것 이니 부정적이진 않지만 죽은 아내의 얼굴 기억을 재생 한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니 의문일 수밖에 없다는 생 각이다.

어쨌든 그 사진의 남편기억도 좀 더 재생되기를 바란다. ☞

정도로 골초였죠. 60년 대 중반 건강 체크 를 하니 암 치수가 높다고 하여 담배를 끊 었더니 말짱해졌어요. 술도 많이 마셨지만 요즘은 지인들과 환담하며 막걸리 몇 잔 마시는 걸로 족합니다”
“우리나이로 몇 살인지 모를 정도로 나 이를 잊고 산다는 ‘정 코’ 정재호 선배는

“힐에 미친다는 것은 행복이다”고 강조한 다. 한번 일에 몰두하면 깊이 빠져든다는 열정이 넘친다. ‘정 코’의 유머감각은 유연 하고 개방적이고 소탈하다. 결속한 유머와 해학은 광쾌한 세상살이의 윤활유다. 나이 를 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기도 하 다. ☞

-고령화시대 양극화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중산층은 줄고 서민층은 크게 늘어나 상류층과의 소득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생로병사의 루트가 바뀌면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예상보다 오래 사는 장수(長壽)비결은 축복이자 재앙으로서 일부 국민은 삶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민의 60대 이상 대부분 사람들은 그동안 직장에서 번 돈을 자녀교육비와 가정생활에 헌신적으로 지출하였기에 퇴직후 거의 노후준비가 마련되지 않고 오직 주택 한 채만을 지켜 온 하우스푸어(House Poor)들이 많다. 부모에게는 봉양해야 하지만 자식의 도움을 바랄 수도 없어 노후에 평생생활비 보급처로 주택연금제도를 알아볼까 한다.

1.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

2007년 7월 출시 이후 3년 10개월 만인 2011년 4월 30일 현재 5,200명으로 총 보증공급액은 7조3882억원을 기록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1)가입요건

-연령 요건: 주택소유자(본인)와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

-주택 보유 요건: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증신청일 현재 주택을 1채만 소유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주택 요건: 일반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아파트(주상복합)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자체에 신고된 주택이어야 한다. 따라서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권리 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경우는 주택연금 대상이 아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서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있을시는 주택연

老後설계와 재테크 ㉞

주택연금 활용법



홍용수

- 본회 화우
-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
- 전 한양대 겸임 교수
- NSI자산관리 연구회 회장

금 수시인출금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하면 된다.

2)주택연금 종료 사유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연금이 종료된다. 단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 요양소 등에 입원하거나 자녀 등의 봉양을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격리 수용 수감된 경우,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담보주택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연금대출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화재로 주택소실,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소유권 상실 등 포함) 한 경우, 주택연금대출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불응한 경우.

3)중도해지의 경우는

는 갚아야 할 금액 많다.

-주택연금은 장기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장기 상품이기에 때문에 만약 5년 혹은 10년 안에 가입을 취소할 때는 오히려 은행 대출상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연금의 원금 대비 금리는 CD금리에 1.1%포인트를 더하여 현재는 4.5%정도이다. 여기에 주택가격의 2%인 초기 보증료와 대출금의 연 0.5인 연보증료가 포함되고 게다가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연립

은 주택가격 감정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을 물게 된다.

예)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가입한 65세 노인이 5년뒤 가입을 철회했다고 가정해보면, 매월 86만4700원씩 60개월치인 5,188만2000원을 받고 총 갚아야 할 금액은 6,675만3596원(주택가격 감정을 따로 받는 경우는 제외된 금액임)이나 되어 1,487만1596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만약 가입자가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명을 달리했을 경우도 조기 철회와 비슷한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 염두에 두어야 하고, 유족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그동안의 대출금을 전액 갚아야 근저당설정을 풀 수 있다.

2.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 안전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는 역모기지론으로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평생 보장된다.

1)가입자격: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 5년 이상에 소유농지가 3만㎡(9,900여평)이하로서 공부상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대상이어서는 안된다.

2)지급종류: 사망 때까지 지급 받는 종신행과 일정한 기간동안만 매월 받는 기간형이 있다.

예)종신행의 경우, 75세 농업인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했을 시는 월 93만6000원정도가 되고 기간형은 70세 농업인이 1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10년간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월 연금액은 68만여원이다.

3)연금을 받다가 담보농지를 팔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약정에 따라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한다.㉞

(문의:1577-7770, 농지연금포털사이트 www.fplove.or)

4)월지급금 비교(주택가격 3억원, 종신행방식 기준) (일반주택,단위:천원)

가입연령	종신행 전액형	증가 옵션 선택시				
		가입시	5년후	10년후	15년후	20년후
60세	709	514	569	691	801	929
65세	864	646	749	868	1006	1484
70세	1064	821	952	1104	1280	1167
75세	1330	1061	1231	1427	1652	1918
80세	1688	1398	1621	1879	2179	2526

#월지급금 감소 옵션은 매년 3%씩 월지급금이 감소되는 방식이고, 노인복지주택의 월지급금은 일반주택과 다르다.(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부 1688-8114, www.hf.go.kr)

6월 토요일건강포럼이 18일 오후1시 50분부터 명동에있는 이윤수 비뇨기과에서 열린다. 이날 연사는 라임나무치과병원 김인수 원장으로 강의 주제는 '노년기 치아 건강해야 장수한다'이다. 김원장은 임플란트 분야의 전문의로 학생들의 구강검진과 교육, 장애인에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필리핀과 캄보디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봉사와 재난구호 활동을 해오고 있다.(사진·김인수 대표원장)

한편 지난 5월 토요일건강포럼은 14일 화창한 토요일 오후 역시 이윤수 비뇨기과 홀에서 열렸다. "성경 잠언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는 구절이 있다. 지혜로운 말이 곧 건강을 촉진한다고 본다. 여기 오신 어르신들은 겸손한 마음이집과 지혜로운 대화로 생활해 나가신다면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년의 건강관리와 성인병'을 주제로 이날 강의에 나선 하나로의료재단 건강증진센터 오혜영 진료원장(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의

말이다.

오 원장은 "지혜와 겸손, 베푸는 마음 상태가 몸을 자동적으로 건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하며 항상 온화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평소 생활에서 건강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볼 것을 당부했다. 오 원장은 "성인병이라는 말이 생긴 때가 1980년대이며. 그전까진 이단어 자체가 없었죠. 산업화, 정보화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인병이 급격히 늘었는데 생활환경의 변화 때문으로 봐야겠죠. 운동 부족, 영양 과잉, 환경오염, 스트레스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적이에요. 특히 스트레스는 건강에 치명적이지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



김인수 박사

는 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 교수는 비만, 고혈압, 고지혈, 당뇨, 흡연, 운동부족, 스트레스, 심전도 이상, 가족의 질병력 9가지를 '성인병 위험요인'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6가지 이상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생활과 성인병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오 교수는 '꾸준한 운동' '적절한 식사' '적정 체중 유지' 세 가지를 꼽았다.

"원시시대에 성인병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은 운동이 생활화됐기 때문이에요. 운동은 1주일에 3일 이상 땀이 날

만큼 걷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 됩니다. 체중은 적절한 유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키에 맞는 체중을 계산하고 있어야 해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관절통 등 이런 질환들은 체중 조절을 못해 생기는 병입니다. 적절한 영양섭취는 운동만큼이나 중요해요. 잘못된 식사법이 영양 결핍, 과다 체중을 초래합니다." 건강한 식사를 위해 오 교수가 제안하는 식단은 야채 위주의 영양식이다. 하루에 음식을 색깔별로 5가지는 먹어볼 것을 권했다. 특히 적색 토마토, 마늘, 녹차, 적포도주는 오 교수가 꼽는 최고의 밥상.

"노화 방지를 위한 최상의 음식들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서양 속담이 있잖아요. 그만큼 토마토는 위암 대장암 등 소화기암, 전립선, 자궁궁부, 폐암 예방효과가 뛰어납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라신이라는 유효성분은 항암, 노화방지, 혈액정화에 탁월해요. 녹차도 비슷합니다.

15면으로 이어집니다.

성인병 예방 3大 수칙

건강포럼 6월18일 개최

1982년 4월, 서른살 밖에 안된 소화관(消化管) 전문의사 마샬(Marshall)은 세균을 배양하는 항온실(恒溫室)에 깜빡 잊고 방치해 두었던 한천배지(寒天培地·우무가사리로 만든 세균 배양틀)를 버리려다가 거기에 세균이 콜로니(colony·집단)를 이루고 있음을 보았다. 의사 마샬이 여러번 배양해 실패했던 세균이 부활절 휴가로 4일동안 방치해두었던게 배양성공의 원인이었던 셈이다. 이보다 앞서 마샬이 소속해 있던 서부 호주의 로열퍼스(Royal perth)병원의 병리(病理)의사 워렌(Warren)이 1979년 위염 환자의 위 점막에 나선형 세균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나 분리배양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워렌은 마샬의 선배의사다.

마샬이 세계 최초로 분리배양에 성공한 나선형 세균은 헬리코박터 페이로리(Helicobacter Pylori·H.pylori로 약칭)로 명명되었는데 마샬은 1984년 7월, 어느날 아침 분리배양된 H.pylori 세균각테일을 훌쩍 마셨다. 동료의사들이 “너 미쳤냐?”하고 말리는데도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

결핵균의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의 4원칙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코흐의 4원칙은 새로운 세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다. 마샬은 세균(H.pylori) 각테일을 마신 7일 뒤에 뱃속에 그 세균이 정착했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기묘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H.pylori 균이 등장하게 된다.

2005년 여름, 어느날 새벽에 내 배가 살살 쓰리기 시작했다. 뭔가? 위산과다인가? 궤양이 있나? 집 가까운 꽤 큰 동네병원에 갔더니 내과를 맡고 있던 나이 많은 여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진단은 조그마한 위염이 있다며 약을 처방했다. 약을 복용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일주일 쯤 지나자 다시 새벽의 배쓰림이 시작했다. 동네 병원은 안되겠다 싶어 도곡동에 있는 영동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갔다. 안면은 없지만 꽤 이름이 나있는 내과 전문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 내시경 검사를 한 그는 위염부위에 H.pylori 균이 짝 깔렸으니 항생제로 제균(除菌)해야 된다고 했다. 처방받은 약을 1주일 쯤 복용했더니 새벽 증상은 사라졌다. 평소에도 항생제를 무슨 사약(死藥)처럼 안먹던 습관 때문에 효과는 빨랐던 것 같다.

H.pylori균이라니 난생처음 듣는 이 고약한 세균에 대해 내 특유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증상이나 원인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은것은 의사, 특히 이름난 의사의 통례다. 1시간 대기 3분진료. 환자가 줄을 서 있는데 설명할 시간이 있겠나 싶어도 이런점은 어떻게하든 고쳐야할 한국적 의료현실인 것으로 생각된다.

병은 낫는다 체험적 養生法⑧

기묘한 세균 헬리코박터 페이로리

일본책, 소화관에 관한 책 7권을 주문해서 샀다. 암파(岩波)문고에서 출간한 ‘위암과 대장암’, ‘위는 괴로워하고 있다’, ‘장은 생각한다’ 대중적인 것이긴 해도 수준이 만만찮다. H.pylori에 관한 3권중 2권은 일본의 내로라하는 내과전문의 수십명이 동원된 H.pylori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H.pylori균이란게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하는 이성(異星)의 생물체처럼 느껴졌다. 그 모양은 나선형, 곧 S자처럼 생겼는데 꼬리에 4~8개의 편모(鞭毛)가 나 있어 이 꼬리를 시계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전·후진을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액체 속에서 100미터를 5.5초로 달리

抗生劑 써도 100% 除菌은 안돼

전문서적이다. 책값이 보통 책의 10배나 되는 고가본인데 장정보다는 내용이 전문적인 것이라서 그런것 같았다. 한 권은 ‘H.pylori 치료 핸드북’, 또 한권은 ‘H.pylori와 위염?위암’ 세번째는 ‘H.pylori균’이다. 그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나는

는 속도라고 했다. 당(糖)과 같은 영양원이 되는 것에는 접근하고, 석탄산(石炭酸)처럼 유독물질이 있으면 편모를 시계의 반대방향으로 돌려서 달아난다고 하니 놀랍다. 크기는 250마리가 늘어서면 1mm가 된다고 하는데 편모가 나있는 밀동치에는 그 편모를 1초에

헬리코박터균은 어떻게 옮겨지나

헬리코박터균이 사람의 위장속으로 들어가 동지를 이루는 유일한 경로는 입을 통하는 것인데 광범하게 조사된 감염실태를 훑어보면 대체로 가난한 사람의 뱃속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 보다는 후진국 국민에게 감염률이 높고, 도시 보다는 농촌이 더 높다. 따라서 수돗물 보다는 불결한 우물물 쪽에, 백인보다는 흑인 쪽이 감염률이 높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은 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미호기(微好氣) 세균이라서 극히 소량의 산소 속에선 살 수 있으나 공기 중에 드러나면 서서히 죽어버린다. 파리의 발이나 몸에 붙은 헬리코박터균은 12시간 쯤은 살아 있다는 보고가 있고 보면 파리라는 매체를 통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헬리코박터균을 예방하는 방법은 대변(똥)으로 오염된 물과 사람의 배

설물을 거름으로 재배된 야채는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저개발국가를 여행할 때는 음료수(물), 얼음, 샐러드 등은 경계대상이다.

또 헬리코박터균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치석(齒石)에서도 균이 검출된 일이 39%나 되므로 할머니나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씹어서 먹이는 일은 헬리코박터균의 가족내 감염 경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필자가 동네병원의 내시경 검사를 받고난 뒤 배가 쓰리기 시작해서 서울 도곡동 세브란스병원의 위 내시경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된 일로 동네 병원의 내시경에 의한 감염을 의심한 적이 있지만 일본에선 소독이 불충분한 내시경으로 위 검사를 받은 환자 중에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된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100번 쯤 회전 시킬 수 있는 단백질 모터가 장착되어 있다니 이걸 역신(疫神)이 제조능력을 총발휘해서 만든 로봇 같은 것인가?

사람의 위장속은 거의 모든 세균이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다. 세균의 서식 환경으로는 생지옥이란 뜻이다. 그것은 위장속으로 들어온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분비되는 위산 때문이다. 위산을 손등에 바르면 살갓이 타는 강력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지옥속에서 H.pylori균은 살아남는 기술을 지니고 있다. H.pylori균은 위벽의 점막 속에 숨어 사는데 아니라 점막세포의 표면에 붙어 무리지어 살고 있다. 그들은 우레아제(요소분해효소)를 분비해서 위산을 중화시킴으로써 생지옥을 살 수 있는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놀라운 생존기술을 갖고 있다. H.pylori균이 위점막을 손괴하는 메커니즘은 확정적인 정설(定說)이 없으나 아무튼 위점막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확실한 모양이다.

사람의 위를 잘라낸 표본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H.pylori균에 감염된 점막에는 점막과립을 녹이거나 뜯어낸 듯한 손괴부위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점막이 상처를 입어 허물어지면 그 다음에는 위산이 제실을 삭이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위축성(萎縮性) 위염이 되고 그것으로 암화(癌化)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H.pylori균이 직접 점막세포를 암화시키는 발암인자를 방출한다는 보고는 없지만 2차적으로 일으키는 염증에 의한 생산물(生産物)이 방아쇠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다. 1994년에 세계보건기구(W H O)가 H.pylori 균을 위암의 위험인자로 승인한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그리고 H.pylori 균은 암 뿐만 아니라 위염, 위궤양의 원인이 되므로 제균(除菌)으로서 위염과 위궤양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H.pylori 균은 유전자에 따라 다섯종류로 분류되며 위속에 정착해 있어도 발증(發症)이 안되는 음성의 경우가 있으므로 감염률이 60~70%에 이르는 한국인 중에는 트집이 나타나지 않는 보건자도 많은 것이다. 일본의 경우 40대 이상의 70~80%가 H.pylori 균 감염자라고 한다. 제균(除菌)은 항생제에 의해 가능하나 100% 제균이 안되므로 내성균(耐性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여러가지 항생제로 일거에 제균해야 한는데 우리나라에선 항생제 처방만 할 뿐 균의 잔존상태를 검사하지 않은 것이 통례인것 같다. 이걸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아무튼 H.pylori균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 될수도 없다. 의료계는 H.pylori균의 연구결과를 축적시켜 감염과 발증을 줄여야 되겠다.☞

14면에서 이어집니다.

녹차의 카데킨이라는 성분은 항산화력과 항균력이 비타민C보다 훨씬 강해요. 녹차, 홍차, 우롱차 중에서 녹차에 카데킨이 제일 많습니다. 하루에 10잔

이상 마시는 것이 3잔 마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적포도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포도주 없는 하루는 태양 없는 하루라는 프랑스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랍니다.”

강의가 끝난후 회우들은 역시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생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오혜영 원장과 못다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1시간이 넘게 즐겼고 몇몇 회우들은 2차를 하자며 청춘남녀들과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명동

번화가로 사라졌다. 특히 뒤푼이에서 입담을 과시한 오전식 회우가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스폰서를 자청해 맥주집 앞 대로에서 10여명의 회우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보길 편집위원 기

IAAF World Championships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1. 8. 27 ~ 9. 4 대구스타디움 www.daegu2011.org



대한민국 대구에서 전세계 65억 인구의 감동이 시작됩니다!

● 입장권 구매(예매)처 ●

- 인터넷 : 인터파크(sports.interpark.com/1544-1555), 조직위(www.daegu2011.org/053-803-9264)
- 직접 판매처 : 대구은행 전국 각지점, 대구시청 및 구·군청 민원실, GS25편의점(ATM기 설치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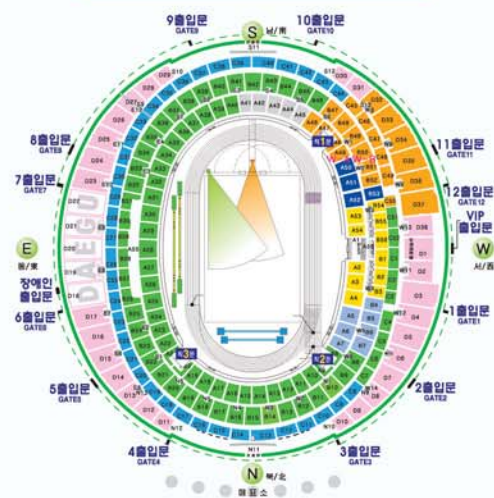
● 입장권 가격

(단위 : 원)

구 분	프리미어		A석	B석	C석	비 고
	F석	S석				
개회식 입장권	150,000	120,000	50,000	40,000	20,000	첫날 저녁경기 포함
오 전 입 장 권	30,000	30,000	20,000	10,000	-	
저 녁 입 장 권	100,000	80,000	40,000	20,000	-	
일 일 입 장 권	125,000	105,000	55,000	25,000	-	
시 즈 입 장 권	850,000	700,000	300,000	200,000	-	전경기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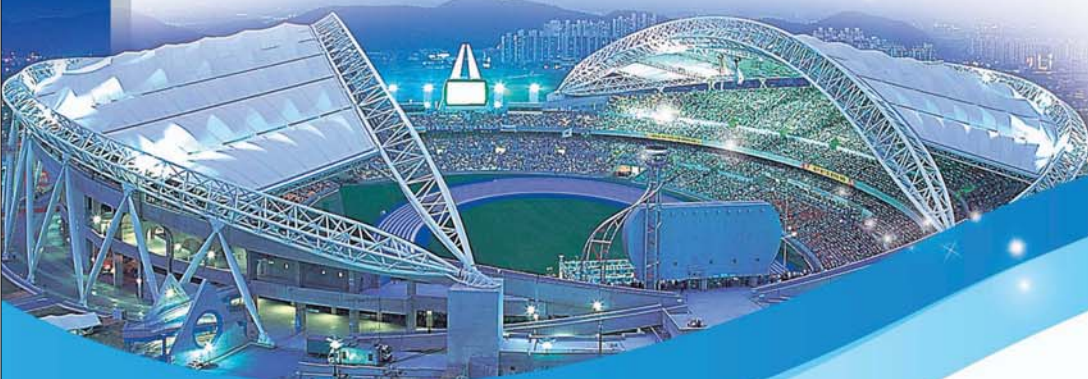
※ 어린이(12세이하) 30%, 장애·경로·국가유공자 50%, 단체(50명이상) 30% 할인,
꿈나무 및 대학생 프로그램(초·중·고, 대학교)참여학교는 별도할인
단, 개회식, 프리미어석, 시즌석 입장권은 할인 되지 않으며, 중복할인 불가

● 입장권 좌석 배치도



구 분	좌석등급
가장자리	VVIP석, VIP석
중앙	미디어석
선수석	선수석
프리미어	F석
프리미어	S석
A석	A석
B석	B석
C석	C석

F : 결승선 S : 출발선 ※ C석은 개회식에만 해당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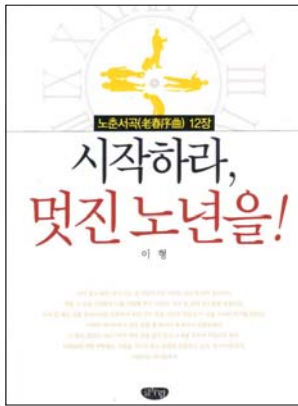
국제육상경기연맹 공식파트너



회우들이 펴낸 新刊

李馨회우 ‘시작하라 멋진 노년을!’ 書評 崔永定 회우 ‘핀 向한 一片丹心’

“살아있는 자는 지나가는 길손이요/ 죽은 자는 제 갈 곳을 찾아서 돌아간 자이다/ 천지는 인간에게 하나의 여인숙/ 산 자나 죽은 자나 만고의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슬프구나” 이백(李白)이 읊었던 시 한귀절이다.(253p, ‘귀천과 만고진’ 중에서) 싱그러운 5월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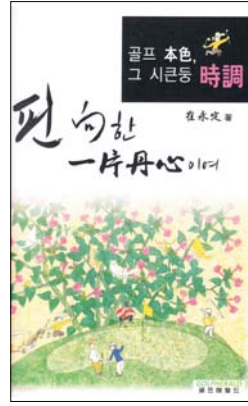
료한 시간엔 독서삼매경에 빠져 보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고 되뇌이면서 “2모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럽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인생 2모작’엔 동의 할 수 없다. 1건(健) 2재(財) 3처(妻) 4사(事) 5기(技) 6교(交)란 말이

있듯이 건강한 노년에 돈(재물)과 배우자가 있고 일거리와 취미생활(技·레저)에 사귄 동무(이상이면 더욱 좋고)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65세 정년 퇴직 후 그림, 서예에 심취하여 개인전을 여는 친구들이 있어 선망의 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인생3모작’에 도전하고 그 길을 뚫어보자고 감히 제안한다. 시간은 만들수록 생기고 길은 밟을수록 뚫리는 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거시경제학을 공부한 10년을 빼고는 한평생을 중학동14번지(한국일보)에서만 탕진(?)한 외골수 언론인인 이 형 선배님은 알뜰도록 지사적(志士的) 결벽성을 지닌 분이다.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백수(百獸)의 왕다운 억강부약 정신이요, 시시비비 철학이다. “사이 좋은 부부의 사소한 말다툼은 관심과 사랑의 표시일 수 있어 한가 사랑싸움이랄 수도 있다. 큰 소리로 다투고서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마는 싸움, 그런 말 다툼을 하면서 늙은 가시버시(‘부부’의 속된 말)는 자꾸 늙어간다. 노부부는 차를 함께 마시는 친구다. 둘 사이에 만 통하는 친밀감과 둘만이 느끼는

골프 칼럼의 개척자인 畏友 崔永定 형이 골프를 시조와 접목시킨 야심작 ‘핀 向한 일편단심’이여를 펴냈다. 한마디로 대담한 시도이자 고심한 흔적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골프 本色, 그 시큰둥한 時調’라는 부제를 붙일 만큼 저자 자신이 하나의 습작이라고 겸손을 떨지만 행간에 스며있는 땀 방울은 숨길 수 없는 노력과 도전의 結晶으로 와 닿는다. 골프의 모든 것, 격언, 속언, 유머, 이론, 교훈, 마음가짐 그리고 골프의 갖가지 사연과 애환을 평시조의 3章 6句 12韻節 45字의 형식으로 아구를 맞추는 작업은 결코 호락호락 하지 않음을 반증해준다. 흔히들 골프는 인생의 축도라고 한다. 최경주선수가 연장전이라는 벼랑 끝에서 퍼터하나로 챔피언십을 따내는 감격, 그것이 골프의 醍醐味이자 처절함이라면 골프는 우리에게 못짓을 재미게 하는 人生訓으로 손색이 없지 않은가? 골프, 그 인생이여, 기량과 運사이, 사실에서 현실로, 규칙에도 안팎있어, 스윙과 퍼터, 自我의 아쉬움, 후련과 다짐등 1백60여페이지에 6백여수의 골프시조가 자리 잡고 있다. 저자의 목표는 1천수의 골프시조를 짓는것 이라니 대단한 의욕



이요 투지다.

〈잘 될 때 꽃같고 잘 안 될 때 뱀 같은것이. 18홀 내내 꽃이 뱀, 뱀이 꽃 변덕이 심해. 꽃일때 겸허하리, 영락없이 뱀 나오리니〉(꽃같고 뱀같고)

〈승부사 최대덕목 좋은 敗者 깨끗승복. 모자벗고 상대 눈보며 악수에 칭찬한마디. 제

존엄이상 상대존중이 골프의 신사도.〉(紳士道)

〈맞은들 어찌하며 안 맞은들 어찌하리. 스윙이 엉망되어 백打 넘은들 그 어찌하리. 잘 맞기 기다려 백세까지 즐기리라〉(골프 何如歌)

체육기자로 그 하고 많은 인기종목 외면하고 굳이 골프를 선호한 先見之明이랄까? 골프에 심취하고 골프에 몰인 하다시피 한 그 정열이 한국 굴지의 골프 칼럼니스트가 되었고 영원한 현역 그것으로 자족하는 저자 말년의 근황은 행복해 보인다. 골프 관련 저서, ‘골프의 세계’, ‘골프는 세상을 바꾼다’, ‘이것이 골프매너다’, ‘韓流골프’, ‘why so, why not’ 등 10여권의 저서 그리고 ‘책니클라우스 골프의 세계’, 보디 톤 스윙등 역서 다수. ㉔

金珖熙(본회회우·동우회장) 記

정감을 지니고 있다” 이 대목은 이형 선배님의 자전적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다. 잉꼬부부로 소문난 부인 김명주 여사와의 사랑이야기도 스며 있는 ‘노춘별곡’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생기를 돋아주는 청춘별곡이요, 비아그라가 뒹직하다.

후배 언론인은 물론 직장인과 연구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지금 다시 시작하는 노년층 지식인들이 꼭 읽어야 한다. 읽으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㉔

諸宰馨(본회 고문) 記

新刊소개

李廷湜 회우 ‘사랑의 시, 이별의 노래’

이정식 회우(전 CBS사장·현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가 한국 가곡을 이해하기 쉽도록 흥미롭게 풀어 쓴 책 ‘이정식 가곡 에세이 사랑의 시, 이별의 노래’를 펴냈다.

이 책은 단순한 음악이야기 책이라기보다 저자가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우리 가곡과 관련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굴해내고 오류를 바로 잡아 음악사적으로도 중요한 저술로 주목받을 만하다.

유명 가곡 ‘동심초’의 1,2절이 1,200년 전 중국 당나라때의 여류시인 설도(薛濤)가 지은 같은 한시의 다른 번역버전임이 이 책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 작곡가가 원래의 번역시와 개작한 번역시를 1,2절로 붙여 사용했다는 것이다. 역자는 김소월의 스승인 김억 시인인데, 그의 ‘동심초’ 번역 내용이 연대별로 어떻게 바뀌었

는지를 보면 흥미롭다.

김민부의 시로 알려져 있는 ‘기다리는 마음’도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번역 또는 번안 물임을 밝히고 있으나 번역, 번안물 역시 하나의 창작이라고 작가를 옹호한다.

또한 일제 식민치하와 남북 북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가곡이 어떤 수난의 역사를 겪어왔는가를 같은 멜로디에 가사가 4개나 붙게 된 가곡 ‘고향’(정지용 시, 채동선 곡)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 ‘고향’과 관련된 4개의 가사 가운데 이은상이 쓴 ‘그리워’의 가사가 한때 월북 작가로 낙인찍혔던



정지용이 1920년대에 쓴 ‘그리워’와 주요부분이 똑같다는 것도 이 책에서 밝히고 있다.

이밖에 김소월의 자살이유와 ‘진달래 꽃’을 쓴 사연, ‘이별의 노래’와 ‘떠나가는 배’에서 읊은 대상이 같은 여인일 수 있다는 탐색 결과 등을 싣고 있다.

이밖에 ‘병태’ 발표 후 평론가의 혹평을 받고 작곡가의 길을 포기하고 외교관이 된 변훈 이야기, ‘보리밭’ ‘비록’ ‘가려나’ ‘가고파’ ‘그리운 금강산’ 등이 작사 작곡된 이야기, 가곡의 새 장르인 아트팝(Artpop)을 개척해 가고 있는 ‘눈’의 작곡가 김효근

교수 이야기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집필을 위해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을 다니며 취재했다. 관련 인물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사진도 직접 찍었다. 주제와 관련된 전문 사진작가의 사진과 화백의 그림도 실려 있다. ‘동심초’의 작자인 설도가 살았던 중국 사천성 성도 망강루 공원의 사진은 저자가 모 관광회사의 지인에게 직접 부탁해 구한 것이다. 책에 실린 ‘설도의 묘’ 사진 등은 이 관광회사의 지인이 사천성 성도의 아는 중국인에게 부탁하여 현장을 직접 찍어 보내온 것이다. 원본 시 등 귀중 자료와 관련 사진에도 많은 정성을 쏟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에 나오는 주요 가곡들을 저자가 직접 불러 CD에 담았다. 책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㉔

최근 KBS 1TV에서 주말 사극 '근초고왕(近肖古王)'이 방영되고 있다. 요즘은 마한(馬韓) 공략 이후 고구려와의 대립 속에서 왕과 귀족 간의 권력 투쟁을 그리고 있다. 극중 백제의 비류왕(比流王)과 고구려 고국원왕(故國原王)이 회담을 했고, 백제 태자가 고구려군의 포로가 됐다거나 하는 장면은 역사의 기록에 없는 허구다. 또 대방(帶方)이 오늘의 황해도라는 비정(比定)도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대방은 오늘의 중국 요서지방에 있었다. 사극의 역사 왜곡과 낱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지만 700년 백제사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룩한 근초고왕의 업적과 리더십을 재조명해본다.

‘삼국사기’ 근초고왕 즉위 조는 이렇게 전한다.

- 근초고왕은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체격이 크고 용모가 기이했으며, 원대한 식견이 있었다. 계왕(契王)이 죽으니 왕위를 이었다. -

이 기록은 근초고왕의 모습이 영웅호걸의 기상을 보였으며, 또한 천부적으로 영명하여 제왕의 자질을 갖추었다는 증거다. 이어서 재위 2년에는 이런 기록이 나온다.

- 봄 정월에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

근초고왕이 천지신명에게 제사지냈다는 말은 백제를 천하의 중심에 두고, 자신을 소국의 왕이 아니라 천자로 선포했다는 뜻이다. 또 다음과 같은 근초고왕 재위 24년(369)의 기록도 이런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다.

- 가을 9월에 고구려 왕 사유(斯由·고국원왕)가 보병과 기병 2만을 거느리고 치양(稚壤)에 와서 진을 치고 군사를 나누어 민가들을 약탈하므로 왕이 태자를 보내 군사를 데리고 지름길로 치양에 이르러 갑자기 쳐서 이를 깨뜨리고 적병 5천여 명의 머리를 얻었으며, 노획한 물품은 장병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겨울 11월에 한수 남쪽에서 크게 군사를 사열하는데, 깃발들은 모두 황색을 사용했다. -

溫故知新

近肖古王의 리더십



황 원 gap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열병식에서 ‘모두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고 한 기록은 근초고왕이 천자, 곧 황제를 자처했다는 증거다. 고대국가의 열병식은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자 거행하기도 했고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훈련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이런 열병식에서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는 것은 국왕이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근초고왕은 346년에 즉위, 375년까지 29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출중한 자질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백제의 부국강병을 이끌었다. 그는 즉위 직후 가장 강력한 호족인 진씨(眞氏) 가문에서 왕비를 맞아들여 왕권을 강화하고 지지 세력을 확대, 이를 기반으로 지방통치조직을 정비하는 등 내치(內

다.

뿐만 아니라 신라와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동진(東晉)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요서지역에 백제군(百濟軍)을 설치하고 대방의 옛 땅까지 차지함으로써 본격적인 대륙 경영을 위한 군사적·상업적 거점을 확보했으며, 왜 열도 방면으로도 활발히 진출했다. 이로써 백제는 건국 이후 사상최대의 영역을 확보했다.

근초고왕은 또 박사 고흥(高興)으로 하여금 백제사를 정리한 ‘서기(書記)’를 편찬토록 했고, 외국에 선진문물을 전해줬다. 유명한 칠지도(七支刀)도 근초고왕이 왜에 하사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근초고왕 재위기를 가리켜 백제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이다.

사극 ‘근초고왕’의 전개가 영성하고 내용이 지리멸렬한 까닭은 사서(史書)에 즉위 이듬해부터 재위 21년(366)까지 20년간 아무 기록이 없어 작가가 상상력을 지나치게 발휘한 탓일 것이다. 사실 근초고왕의 본명은 부여구(扶餘九)가 아니라 부여영(扶餘映)이고, 다음 임금 근구수왕(近仇首王)이 되는 태자 이름은 부여수(扶餘須)이다.

KBS는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사극을 만드는 만큼 좀 더 정확한 고증과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근초고왕의 출중한 리더십과 위업을 시청자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백제의 부국강병을 이끈 일세의 영걸 근초고왕은 재위 30년째 되던 375년 11월에 죽고, 그 뒤는 천재적 군략가인 태자 부여수가 이었다. 역사를 되새겨보면 자질과 리더십이 부족한 지도자가 나라를 난국으로 이끌고 멸망에 빠뜨린 경우는 수없이 많다. 오늘날도 국정의 최고책임자든 기업경영의 총수든 자질이 부족하고 무능하면 국가와 회사에 손해만 끼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망치기 십상이다. 최고지도자가 부국강병과 국민복은커녕 외부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과감한 결단력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유부단(優柔不斷)하게 좌고우면(左顧右盼)한다면 나라의 안보는 불안하고 미래는 어둡다. 그런 까닭에 역사의 교훈을 강조하는 것이다. ㉞



KBS 1TV 주말사극 '근초고왕'의 한장면.

스스로를 천자, 즉 황제임을 나라 안팎에 널리 선포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황색은 곧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이다. 황색은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중심이며 최고 권위를 상징했다. 그런 까닭에 중국에서는 황색 옷은 천자만 입을 수 있었고, 제후는 감히 사용

治)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국민복을 먼저 도모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끌어 사방으로 정복활동을 전개했다. 남쪽으로 마한의 잔여 세력을 복속시키고 동쪽의 가야 세력을 영향권에 뒀다.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 고국원왕을 죽이는 등 국위를 떨쳤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건강법

임 춘 희 (심리치료사·한국심성교육개발원)

건강의 조건을 자연요법에서는 온열, 영양, 운동, 마음으로 본다.

먼저 ‘온열’은 인간이 온열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이 중요하다. NK세포(백혈구의 일종으로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인데 인체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세포다. 우리말로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가 37도 이상일 때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0% 저하되고 체온이 1도가 오르면 면역력은 6~7배가 된다.

참고로 체온에 의해 오는 병을 보면 37도: 면역력 6-7배 증가, 36.5도: 인체기능 활성화,

36도: 면역기능 30% 감소

35.5도: 알러지, 아토피, 염증성질환 가능,

35도: 암, 심혈관질환이 증가한다.

그래서 체온1도 올리는 아침걷기, 따뜻한 물먹기(하루 1.5-2리터), 목욕, 운동을 해야 한다.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하하 하하하!!운동”인데 웃는 것이다. (사진2 손뼉치기)

웃으면 연수(뇌의 최하부에 위치하며 척수(脊髓)의 위쪽 끝에 이어지는 부분. 중추신경계는 척수와 뇌로 이루어지며 그 뇌의 최하부, 즉 뇌의 연장된 부분이라는 뜻이며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를 자극해 시

“건강한 사람도 20일간 누워만 있으면 병자가 된다. 이제는 운동이 운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움직임은 건강의 필수조건이고 또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몸의 670개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고 근육의 손실은 건강과 직결된다. 신체를 움직여 근육을 사용하면 대사를 높여 열이 발생하고 이 발열에 에너지가 활력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어깨를 움츠리고 온다. 몸도 마음도 경직되어 괴로움의 표현인 것 같다. 왼쪽어깨가 처진 사람은 중풍을 조심하고 오른쪽 어깨가 처진 사람은 눈의 충혈과 두통을 동반 할 수 있다고 한다. 어깨에서 머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승모근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깨를 활짝 펴고 어깨박수를 치는 것이 좋다. 어깨를 많이 올릴수록 건강하다. (사진 1 두 손 올린 사진)

력증진에 도움이 되고 체온상승효과, 대퇴부강화, 혈액순환, 독소 배출효과가 있다.

두 번째로 영양인데 올바른 식습관으로 혈액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소식(小食)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잘 씹어 먹어야 한다. 씹는 활동은 턱밀을 지나고 있는 족양평위경을 자극하여 위와 췌장의 기능이 좋아지며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 타액의 양은 건강과 비례되는데 50번 이상 씹는 것이 좋다. 평소 입안이 마르면 냄새가 심할 뿐 아니라 말하는데도 지장이 많다. 이때는 간단히 턱 밀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자. 신기하게도 금방 침이 나와 입안에 가득 고일 것이다.

아니면 귀밑 턱뼈 끝을 문질러도 침이 거뚇뚇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특히 전립선을 건강하게 해

19면으로 이어집니다.

지난주 내내 사나운 비바람에 황사까지 겹쳐 지나가더니 요즘의 서귀포는 말그대로 계절의 여왕다운 5월의 절정을 구가하고 있다. 해뜰무렵 산책에 나서면 청자빛 바다로부터 떠밀려 오르는 미풍은 나뭇잎, 풀잎을 다독거리며 달려가고 초록빛으로 옷 갈아입기 바쁜 가로수가자마다 온갖 텃새들 또한 시끄럽도록 재잘거리며 푸드득푸드득 날아다니기 바쁘다.

내가 사는 신시가지에는 주로 담팔수와 후박나무 먼나무 뽕나무 굴거리나무 그리고 위싱턴야자수를 비롯한 몇가지 야자나무들이 큰길가 가로수로 고루 퍼져있고 그밖에 조경수로는 한겨울에 꽃을 피우는 동백을 비롯 적갈색 잎으로 동글게 다듬어서 키우는 홍가시와 먼데서보면 꼭 육지의 밤나무처럼 노오란꽃을 피우는 녹나무 매화 감나무 목련 등 나무 삼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전나무 대나무 그리고 요즈음 한창 개화를 서두르는 철쭉에 장미등등 이루 다 헤아리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은 가로수 조경수들은 내가 내려오던 11년전만 해도 대부분 4,5년생 정도로 그저 고만고만한 것들이었으나 지금은 몰라보게 웃자라서 시가지전체를 말 그대로 숲속의 마을로 변모시켜놓았다. 하기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느끼는 서귀포전역의 녹화속도는 육지의 그 어느곳보다도 빠르고 무성하다. 그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나무들이 남방식물인데다 시당국의 관리 또한 철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의 나무들은 뽕나무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처럼 가을이 깊어갈수록 낙엽청소에 바빠지는 풍경 같은 것은 거의 모른다. 그러니까 이 고장 나무들에게는 가을이면 모든 잎을 훌훌 털어버리고 겨우내 폭췌는 휴식기간이 없는 것이고 그만큼 성장을 계속하는 셈이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로수의 대종을 이루는 담팔수와 후박나무 먼나무 굴거리나무등으로 지난 10여년사이 모두가 제법 큰 나무로 자랐다. 간간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음에도 한두해만 지나면

5월의 서귀포 예찬

하늘을 가릴 정도로 무성해지는데다 특히 뿌리부분이 상하수도 등 인프라시설들을 마구 들쑤시는가하면 마치 용틀임처럼 보도위로까지 뿔고올라와 적잖은 민원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토록 무럭무럭 무섭게 자라는 나무들을 볼 때마다 한없이 대견하고 사랑스럽다. 그중에서도 집 앞을 지나



김춘빈

· 본회 회우
· 전 KBS 전문위원
· 전 대한일보 정치부장

림 속이라도 갇힌 것처럼 어둡고 서늘하다.

그러나 저러나 아무리 서귀포에 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해도 요즈음 한창 개화기에 접어든 굴나무를 당할 수는 없다. 굴은 이고장의 대표산업이고 서귀포전 체 농 경 지 면 적 (26.65km²)의 반이상을 점하고 있다. 5



필자가 이른아침 뒷산(고근산)에 올라서 찍은 서귀포 앞바다. 멀리 범섬이 보인다.

는 기간대로를 따라 인도안쪽으로 높다랗게 웃자란 굴거리나무군락의 도열은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존재다. 상록 활엽 교목으로 평균10센티가 넘는 타원형의 잎은 흡사 거인의 두 손가락을 짝 펴서 겹쳐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다. 예부터 가지와 잎은 만병초라 해서 약용으로도 널리 쓰였다는데 맨 밑에서 부터 넓직한 잎이 겹겹이 퍼져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방풍, 방음의 효과도 크지 않을까 싶다. 이른 새벽 그 굴거리나무 군락안에 들어서보면 마치 밀

월부터 벚꽃보다 조금 작은 흰색의 5판화를 피우는데 그 향기가 꼭 그 옛날 서울근교에 흔하던 아카시아 꽃내음을 닮았다.

노지감굴의 경우 늦가을부터 황금빛 열매들이 주렁주렁 땡벌아래 탐스럽게 익어가는 모습은 북쪽하늘위로 높게 솟아오른 한라산의 위용과 함께 이고장만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그렇게 무르익은 서귀포 굴은 하우스생산량까지 모두 합쳐 한해평균 50여만톤이나 쏟아져 나온다.

서귀포감굴의 역사는 생각보다 꽤 오래다. 고려사중에는 1052년(문종6년)당시 탐라에서 공물로 올린 감굴의 양을 1백포로 늘렸다는 기록도 있으나 20세기 들어서는 그 같은 재래종이 아닌 온주밀감이었다. 중국의 온주지방이 원산지인 온주밀감은 1911년께 서귀포에 있던 한 프랑스신부가 일본에 사는 친구에게 제주왕벚나무를 선물, 그 답례로 받은 14그루의 온주밀감을 키우면서 재배되기 시작 했는데 지금도 서귀포시 서흥동 성당앞에는 그중 2그루가 남아있다. 하지만 오늘날 제주전역에 걸쳐 널리 재배되는 굴은 1953년 휴전직 후부터 주로 일본에 사는 제주출신교인들이 보내온 개량종묘목들로 제주굴 산업은 그 무렵부터 비로소 본격화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굴산업은 오늘날 웰빙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품종으로의 획기적인 또 하나의 도약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무튼 입하, 소만을 지나 망종, 단옷날을 열흘 남짓 앞둔 서귀포의 산과 들은 지금 한창 변신에 바쁘다. 그동안의 연초록으로부터 초록빛 또는 진초록으로 어떤 것은 보다 짙은 암녹색으로 하루가 다르게 물감색을 바꾸면서 나날이 살찌간다.

조석으로 산책길을 오르내리며 이렇듯 날로 무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서귀포의 자연속에 파묻혀 사는 나는 참으로 복받은 노인이라 확신하고 있다. 더구나 10여년전 전후2차례에 걸친 대수술로 거의 탈진상태의 몸으로 내려온 나를 오늘 이만큼 일으켜세워준 것이 바로 이곳의 물과 바람 그리고 푸근한 인심이었음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다. 그런데 나의 처지나 환경이 이렇수록, 그리고 늙어갈수록 두고 온 내고향 북한땅의 햇빛은 산하가 눈에 밟혀 잠을 설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1972년 첫 번째적십자회담 때 평양을 다녀오면서 내 눈으로 직접 본 민둥산들, 그것과 요즈음 뉴스를 통해 접하는 북의 풍경은 어느새 40년이 지났음에도 조금도 달라진게 없다. 그래서 서귀포의 질푸른 5월을 엄청 사랑해 마지않는 내마음의 한구석은 오늘도 조금은 무겁다. [4]



사진1



사진2



사진3

18면에서 이어집니다.

주는 식품으로 슈퍼푸드 4가지(토마토, 굴, 마늘, 가지)를 권한다.

다음은 운동 이다. 4차원 균형운동을 통한 대퇴부 강화를 위해 똑바로 서서 다리를 반쯤 굽히기 운동과 전립선 강화를 위해 발 마사지 특히 발 뒤

꿈치 쪽을 마사지 하는 것이 좋다. (사진3 다리 반굽하기)

끝으로 마음이다. 우리 몸은 신경 - 호르몬 - 면역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 신경에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고 중추신경에는 뇌와 척수신경이 있는데 우리의 뇌는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

복을 만드는 데는 웃음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火는 炎을 만들고 炎은 癌을 만든다. 癌자를 보면 입이 3개가 막혀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를 글자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다. 유행가에 이런 노래가 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접하나만 찍으면 '남'이되

는... 그래서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고질병'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 '고질병'에 접하나만 찍으면 '고질병'이 된다. 매사를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한다면 나와 가정과 사회가 더욱 밝고 건강해질 것이다.

정리·사진: 이보길 편집위원

“근로자, 교육훈련기관, 기업에게 무한의 정보를 드립니다”

배우는 즐거움, 일하는 보람



직업능력지식포털 <http://portal.hrd.go.kr>



- 01 근로자는 다양하고 유용한 무료강좌와 지식콘텐츠로 현장 직무능력 Up!
- 02 교육훈련기관은 자체 훈련과정 무상홍보를 통한 훈련생 모집율 Up!
- 03 기업은 원스톱 학습지원시스템을 통해 직원역량과 기업경쟁력 Level Up!

봄비속에 만끽한 寧越 진면목

본회 체력단련 행사

이 학 주 (본회 회우 · 전 한국경제 편집부장)

강원도 영월 일원에서 80여명의 회우들이 참가한 대한언론인회 금년도 봄철 체력단련 행사는 태백과 동해안, 정선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의 강원도 오지의 작은 도시로만 여겨온 영월의 진면목을 재조명해 본 계기가 되었다.

영월 일원의 역사문화유적지를 탐방한 이날 하루 분위기를 이학주 회우의 여행기로 실는다.

〈편집자 주〉

불수룩 신비로운 한반도 지형

봄비가 내리는 달갑지 않은 날씨에도 회원 76명이 참가한 이날의 모임은 아침 8시 관광버스 2대에 나눠 타고 프레스센터 앞을 출발, 11시쯤 영월 땅 선암마을에 도착, 촉촉한 봄비를 맞으며 한반도 지형을 둘러봤다. 우리나라 지도를 빼놓은 이곳은 볼 수록 신비롭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한반도지형은 웅장한 숲으로 덮여있다. 굽이쳐 흐르는 강줄기는 동·서·남해를 방불케 하고 서·북양방향엔 광활한 중국대륙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반도지형을 배경으로 찰칵 “평양부근의 숲은 樹勢가 빈약한 것 같지 않소?” 내 옆에서 구경하던 어느 회우의 말이다. 자세히 바라보니 그렇게 보인다. 비가 내려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 검푸른 남쪽의 山野에 비해 휴전선 북쪽의 森林색상은 남쪽처럼 淸明하질 못하다. 거름기가 없고 심한 가뭄으로 시든 樹木의 형상이다. 아무튼 자연현상 마저 한반도의 실태를 말해 주는 것 같아 굶주린 강성대국(?)의 허세가 떠올라 내 입술에 씩씩한 嘲笑가 번진다.

장릉의 산신령은 이갑순 해설사

다음 행선지는 단종의 슬픈 역사가 서려있는 莊陵. 이곳 가파른 언덕위에 비운의 어린 임금 端宗이 잠들어 있다. 서럽게 서럽게 울다가 죽음을 당한 단종임금님께서는 지금 눈이나 감고 잠이 드셨을까? 너무도 한스러운 죽음에 눈도 못 감고 누워 계실까? 우리 일행은 이곳 장릉에 와서 ‘넙넙 째나는 (너무너무 재미나는)’ 안내자를 만났다. 이갑순이라는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왜 하필 이름이 갑순이냐”고 장난삼아 물었더니 “올 아버지가 쌀 8가마주고 지어준 이름”이라면서 이름 바꿀 생각 전혀 없다고 웃는다. 이날 갑순이 한사람이 자그마치 76명의 늙은 갑돌이를 상대로 한껏 웃고 감동시켰다. 시ết말로 가지고 논 셈이다. 앓든 배꼽이 빠졌으니까.

조치원서 24살에 영월로 시집와서 이곳서 살아온지 31년째라는 이갑순해설사는 장릉과 단종에 관한 正史와 野史 秘史는 물론, 宮中法道 典禮·故事·古建築에 관한 전문성 등 막힘이 없다. 人名도 地名도 年代도 日字도 술술 풀려 나온다. 안내 중간 중간에 양념처럼 끼워 넣는 코믹한 유머가 못 사나이들을 완전히 웃음의 도가나로 몰아넣는다. 좀처럼 웃지 않는 모 회우도 이빨을 드러내 놓고 꺄꺄 웃는다. 우리 팀이 아닌 다른 관광객이 그녀에게 붙여준 애칭은 ‘장릉 산신령’이라 했단다. 전국 해설사 대회



김삿갓 묘소 앞에서.



장릉앞에서 단종의 한을 달래며.



곤드레 나물밥으로 즐거운 오찬.

에서 1등도 하고 그 공로로 7박 9일 구리와 여행의 행운도 차지했다니 박수를 받을 만도 하다. 근처 청솔식당서 먹은 곤드레 나물밥은 모처럼 맛 본 별식. 종이컵에 따라 마신 한잔의 막걸리 맛도 좋았으나 겨우 한잔뿐 갑질만 났다.

소나무도 忠節을 아는데...

청령포의 서장은 변함없이 흐르건만... 물굽이가 소 코뚜레처럼 감아도는 섬 아닌 섬 청령포. 이곳은 단종의 최초 유배지란다. 선착장 주변은 지금 한창 공사중이다. 水深 60cm를 유지하기위해 장마철에 貯水했다가 渇水期에 방류하는 일종의 간이 댐을 축조중이다. 그런데 이곳은 청령포인가? 청녕포인가? 청령포 입구에 세워놓은 안내판에 漢字로 ‘淸冷浦’, ‘淸冷浦’ 두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일부 홍보자료엔 淸涼浦로 표기돼있다. 청령포? 청녕포? 어느 것이 정답인가? 1~2분 동안 배를 타고 건너가 배에서 내리면 강변은 온통 자갈 밭이다. 이 자갈밭을 걷는 동안 발바닥 지압도 했고 鶴山臺를 오르는 높은 계단도 늙은이들의 체력단련행사 명분은 충분히 세운 것 같다. 몇 백년 風霜을 겪으면서 권력의 無常함을 지켜본 청령포 西江邊 소나무

군락지가 孤高한 자세로 우리를 반긴다. 그 소나무들 사이에 초막이 한 채 있고 초막 옆에 단종이 유배와서 살던 御家가 있다. 臣下나 백성이나 임금앞엔 直拜 아닌 曲拜를 해야 한단다. 그것이 궁중의 법도란다. 이곳 御家 앞에 뻑뻑히 하늘로 치솟은 老松가운데 유독 한 그루의 老松이 御家를 향해 曲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忠節松이라고 부른다. 이갑순해설사에 따르면 단종이 이곳으로 유배 온 이후 2명의 시종과 5명의 궁녀가 제 발로 찾아와서 유배살이 단종을 수발했는데, 단종이 승하하시자 시종 한사람과 궁녀 네 사람이 鶴山臺 절벽에서 투신, 西江의 怨魂이 되었다는 안쓰러운 얘기도 나를 숙연케 한다. 백마강의 삼천궁녀는 당나라 군사에 쫓겨 투신했지만 청령포의 시종과 궁녀는 충절의 투신, 그 의미가 다르다. 그때 함께 뛰어내리지 못한 시종과 궁녀 한 쌍은 분명 짝궁이 되어 달아났을 것이고 평생 죄인처럼 살았겠지만 지금은 어느 산야에 묻혀 있을까? 단종이 왕비가 그리워 漢陽쪽을 바라보고 쌓았다는 망향의 돌탑, 70m절벽을 거느린 鶴山臺, y자형태의 觀音松 등 그 애처로움이 몇 백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못사람들의 가슴을 적신다. 이 모두가 슬픈 역사의 현상이지만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의 눈요깃거리가 되고, 영월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보태주고 있다.

김삿갓, 방랑의 발끝이 여기서 멈춰주려

“세상이 싫든가요, 벼슬도 버리고....” 방랑시인 김삿갓의 유적지는 강원 경북 충북의 접경지 노루목에 자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호는 蘭阜 본명은 金炳淵, 洪景來란때 역적앞에 무릎 꿇은 金益淳을 규탄하는 글을 썼다가 뒤늦게 金益淳이 조부임을 알고 하늘이 두렵던가?, 삿갓을 눌러 쓰고 술잔에 시 한수로 삼천리 방방곡곡 유리걸식...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김삿갓이 여기에 묻혀있다

풍류와 해학과 당시의 사회제도를 풍자하며 ‘此竹 彼竹 浪打竹’(이대로 저대로 물결치는 대로) 거침없이 살다간 김삿갓. 삿갓의 묘소를 찾아가니 김삿갓차림새의 어느 中老가 색소폰 4촌같은 악기로 명곡환이 불렀던 김삿갓노래를 반주하면서 우리들더러 따라 부르란다. 숙연한 자리였건만 우리들 老記者들의 노래숨씨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기똥차다. 이어서 들른 곳은 김삿갓문학관. 2층으로 건축된 이건물의 지붕도 김삿갓처럼 삿갓을 쓰고 있다. 그러나 평생을 함께 다닌 삿갓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곳의 안내자는 50대의 남자. 1층에 자리 잡은 영상관에서 삿갓의 一代記를 照明해 본다. 2층엔 삿갓에 관한 각종 책자와 몇 가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나도 삿갓처럼 살고 싶었다. 내가 중학생시절에 김삿갓詩集을 읽고 그의 詩와 자유로운 방랑행각에 매료되어 나도 삿갓처럼 살겠다고 마음 먹고 집을 나간 적이 있다. 때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겨울날, 당시 경북 尙州로 피난가 있던 나는 지게 작대기 하나 주워 김삿갓처럼 지팡이 짚고, 하루 종일 80여리 길을 걸어갔는데, 善山어디쯤서 낙동강 건너기전에 해가 저물었다. 뱃속은 쪼르륵, 몸은 천근만근이다. 등잔불 밝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밥 한술 달라, 하룻밤 묵고가자” 애원했는데 밥은 한술갈 주겠으니 다른 집 가서 더 얻어 먹으라 하고 잠자리는 안된단다. 할 수없이 찾아간 곳이 동구 밖 물방앗간. 火氣도 없고 덮을것도 없는 차디찬 물방앗간의 하룻밤 고통이 삿갓처럼 살기를 포기시켰다. 단 이틀도 못견딘 나의 젊은 시절 방랑의 꿈, 그 객기가 素月의 詩처럼 불려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고 허공 속에 맴돌다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었다. 냉대, 팔시, 조소를 십전대보탕처럼 꿀꺽 마시며 평생을 유리걸식해 온 삿갓형님 형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뒷방늬이로 밀려난 호랑이들

김삿갓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60년도 훨씬 더 된 나의 소년시절 추억이 走馬燈처럼 스쳐지나 가는데 오늘 여기모인 이빨 빠진 호랑이, 그래도 옛날엔 다들 한 가락 하면서 정의의 필봉을 휘둘렀던 무관의 제왕이 아니었던가.

아직도 기백은 살아있으나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뒷방늬이로 밀려난지 오래인데, 오늘 여기와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했는가? ㉞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이철승 회고록 출판기념회 진행 말아



박 실(전 국회의원) 본회이사=해방직후 반탁반공운동의 선두에서 대한민국 건국에 크게 기여하고 반탁 반공 자유민주주의 수호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친 소식 이철승 선생의 회고록 '대한민국과 나' 출판기념회에서 진행을 맡아 노련한 솜씨를 발휘.

자연경관 선정 추진위원회 고문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회우=스위스 뉴세븐 원더쇼가 주관하는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고문으로 추대.

K-TV '낮선 시간 속으로' 출연



이규섭(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본보 편집위원 = 지난 6월 4일 K-TV '낮선 시간 속으로'에 출연, 단오 세시풍속과 함께 단오에 얹힌 추억을 풀어냈다.

'독도시사신문' 논설위원장 취임



이보길(KBS해설위원) 본보 편집위원=지난 5월 창간된 격 주간 신문인 '독도시사신문'의 논설위원장으로 취임했

다. 이 신문은 16면으로 7만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주간으로 바꿀 예정이다. 제호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전반적인 시사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정식 가곡에세이 출판기념회



이정식(전 CBS사장)회우 = 6월 3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정식 가곡에세이 '사랑의 시, 이별의 노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호텔시장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이태교(서울부동산포럼 회장·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회우= 6월9일 오전 JW메리어트호텔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호텔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인터넷 IPF국제방송 주필 취임



천상기(전 내외경제 편집국장·경기대 초빙교수)회우=최근 인터넷 방송 포털사이트인 IPF 국제방송 주필에 취임.

이상원 원로회우 별세

이상원 원로회우가 지난 5월 6일 일산 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2세. 이상원 회우는 1929년 4월 25일생으로 연합신문 기자,



동화통신 정치부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주소·전화번호 변경

구만완 회우 : 서울 용산구 도원동 23번지 삼성레미안 아파트 107동 2002호 (우 140-748)

김진섭 회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00 하늘마을 511동 1202호(우410-755) 전화 010-0075-8379

박정진 회우 = 휴대전화 010-6252-2425

박진서 회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0탑동518 탑마을 주공A 803동 904호

정건일 회우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49-3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015동 305호(우137-873)

이태자 회우 = 서울 강서구 등촌3동 부영아파트 107동204호 (우편번호157-772) 011-388-8148

안건혁 회우 = 휴대전화 010-5244-5455

자녀 결혼

이용권 회우 장남 : 5월 21일 1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정종표 회우 장녀 : 5월 27일 오후 6시 30분 조선히otel 1층 그랜드 볼룸

백환기 회우 장녀 : 6월 5일 오후 1시 호놀룰루 더 칼라호텔

언론사 社友會 소식

경향신문

이사회, 정기총회등 논의

(1) 지난 5월 26일(목요일)오전 11시 사우회 사무실에서 올해 두 번째 이사회 (8기4차)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정기총회·및 단합대회 개최, 기타 사우회 발전을 위한 안건 등을 토의했다.

(2) 경향OB산악회는 지난 5월 7일(토요일) 경북 문경의 주흘산을 다녀왔다. 신입 조명동 회장 체제로 들어서서 두 번째 산행인 이번 산행에는 15명의 회우가 건각을 과시했다.

동아일보

고회 회우등에 축하 기념품 전달

지난 5월 18일 서울 한양대 동문회관 대강당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 겸 단합대회를 열고 올해 고회 회수 미수를 맞이한 회원들에게 기념품과 금일봉을 전달했다.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단합대회는 동아일보 출신 본회 회우들이 많이 참석,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신아일보

사우회 회장에 윤종보씨

신아일보 사우회 회장에 윤종보씨가 선출됐다. 신아일보 사우회는 지난 5월 12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장기효 회장과 김종하 前국회부의장, 김길홍 前국회의원, 윤구 前문화일보주필등 70여명의 사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기총회를 열고 윤종보 방송위원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윤종보 신임 회장은 1968년 제5기 수습기자로 신아일보에 입사하였으나 80년 언론통폐합조치로 MBC로 옮겨 사회부장, 정치부장, 해설위원 등을 거쳐 안동MBC사장을 지낸 뒤, 방송위원회(現

방송통신위원회 전신)의 제2기 방송위원을 역임했다.

중앙매스컴

5월 11일 새만금 방조제 탐방

(1)지난해 1박 2일로 실시된 경주 문화탐방 및 월성원자력발전소 시찰 그리고 12월의 남도문화 탐방 프로그램에 이어 3번째로 지난 5월 11일 새만금 방조제를 시찰했다.

(2)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 회유제에서 금년도 춘계 바둑대회 개최.

KBS

그룹별 담당 부회장 선임

그룹별 위원회 담당부회장을 선임했다. 등산 낚시 문화유적답사 사진위원회는 전봉찬 부회장이, 바둑 서화 음악 위원회는 김승종 부회장이, 사이버그룹 담당에는 정근춘 부회장이 선임됐다. 미디어스터디그룹 이흥기 부회장과 이벤트그룹 홍금표 부회장은 유임됐다.

CBS

서울대공원에서 삼림욕

지난 5월 12일 나들이동호회 주최로 서울대 공원 삼림욕장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동호회는 서울대공원에서 삼림욕을 하고 근처 한우불고기집에서 점심을 들며 화기애애한 저녁 한때를 즐겼다. 나들이동호회 행사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첫번째 목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두 번째 목요일)에 모인다. 희망하는 회원은 여운역 사무처장에게 연락하면 된다.

(연락처02-734-5031/010-5101-4968)

회우 저술문고 보내주신 분

(접수 순)

이구열 회우= '근대한국화의 흐름' (1983) '근대한국미술사의 연구' (1992) '북한 미술 50년' (2001) '우리 근대미술 뒷 이야기' (2005) '한국문화재 수난사' (2005)

최영정 회우 = 골프 本色, 그 시큰둥 時調 핀 向한 一片丹心이여' (2011)

연회비납부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2008 형진한

2009 어경택 정종표 형진한

2010년 어경택 정종표 형진한

2011년 권영빈 김병모 김호기 박승구

성낙오 어경택 이도형 정서구

정용기 정종표 조덕일 조두흠

조성하 한상규 형진한

2012년 노영태

大韓言論

창간 1977년 4월 7일

발행인겸 편집인 홍원기

편집위원장 : 성낙오

발행처 (사)대한언론인회

주소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전화 (02) 732-4797/4798

(02) 2001-7621

E-mail : kjc1405@hanmail.net

“우린 그냥 뭉쳐을 뿐인데...”

캐시백 2배! 받는 정말 쉬운 방법

① 친구와 함께 근처 IBK기업은행에 간다

② 새로 나온 Style+ 카드를 함께 만든다



③ 친구와 일촌을 맺는다

④ 친구의 카드 실적과 합쳐서 2배로 불어난 캐시백을 즐겁게 챙긴다



힘들게 모은 카드포인트, 캐시백 도기 쉽더라고요?
이제, 최대 4명까지 일촌 맺고 캐시백을 2배로— 쉽고 크게 챙기세요!

IBK Style+카드



전국
어디서나
할인

+

최고
10% 할인

+

전 가맹점
무이자할부

+

최고
30만원
일촌캐시백



COLORCODE® POP
앱을 다운받아 찍어보세요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위대한 도전,
바다가 미래다!”

경기국제보트쇼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기간 | 2011. **6. 8**(수) ▶ **6. 12**(일)

장소 |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 안산시 탄도항

www.koreaboatshow.org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